

雲門

불기 2563년

봄호

통권 제 148호

雲門寺僧伽大學





구름문을 펼치다

- ☞ 온 도량 산천이 꽃으로 장엄되어가는 화엄의 세계가 우리 눈 앞에 보이십니까? / 대교과 선주
- ☞ 따뜻한 햇살 아래 화엄경 독송 신심 나고 좋아요~ / 대교과 법인
- ☞ 새로운 출발! 언제나 시작하는 그 마음으로! / 사교과 덕안
- ☞ 거름내음을 견뎌야 꽃향기를 맡을 수 있듯이 우리 마음밭에도 너그러움을 뿌려 아름답게 회향하기를……. / 사교과 지안
- ☞ 내가 부처님 경을 배울 만한 수행자인가 하루하루 돌아보며 한 철 잘 살겠습니다. / 사교과 도욱
- ☞ 솜털 같던 목련꽃 겨울을 보내고 꽃을 피웠다. 나는 치문을 이겨내고 사집이 되었다. / 사집과 혜등
- ☞ 찰나찰나 수행자임을 잊지 맙시다. / 사집과 총지
- ☞ 당신이 따스해서 봄이 왔다는 말처럼 우리가 따뜻해서 이 도량에 봄이 왔습니다. / 사집과 진욱
- ☞ 웃음꽃이 활짝 피는 치문반이 됩시다. / 사미니과 진아
- ☞ 한 번 보고 한 번 웃고 친해져 버렸다. 서로서로 갈고 닦아 나날이 새로웁시다. / 사미니과 도현 下
- ☞ 자비란 기쁠 때 함께 기뻐해 주고 슬플 때 함께 슬퍼해 주는 것이라 합니다. 치문반 서르가 '자비도반' 이 됩시다. / 사미니과 효민

雲門

목차

02	호가산 운문사	구름문을 펼치다
04	죽림헌	용상덕을 바라며 평성
06	교수논단	청도 운문사의 나한신앙 고찰 ㉔ 일진
11	想	부처님과 하나 되는 시간 별견
12	풍경소리	'내 나이 몇 살인가! 참살 멍살 갈보리쌀이나라.' 영덕
15	깨달음으로 가는 길	마음의 등불 편집부
16	수행, 그 속에 깃든 행복	몸을 통해 마음 바라보기 유덕
18	학인논단	불교 호스피스와 영적 돌봄 동심
22	선지식 탐방	당당한 수행자의 향기로 주인공이 되어라 - 백담사 기본선원 유나 영진 스님 탐방기 - 유심
26	이뤄꼬	부처님 마음 향광
28	운문만행	대승불교의 꽃, 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㉔ 지안
32	외부기고	어느 '처사 교수'의 뉘드리 신유탁
36	방부소감	처음처럼 치분환
38	수행의 두레박 하나	은사스님 발자국을 따라서 지엄
40	수행의 두레박 둘	운문사 오는 길 범웅
42	차례법문	깨달음의 여행길에서 만난 운문사 향주
44	운문, 운문인	꽃보다 스님 편집부
46	특별법문	중 노릇 할 만해요? - 법정 스님 법문 중에서 - 정리.혜주
50	이 한 권의 책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를 읽고 혜오
52	운문논평	탁발, 당당한 수행자의 증생을 위한 자비심 편집부
54	운문소식	
55	등불	관세음보살 편집부



용상덕을 바라며

명성 / 운문사 회주



붉은 매화와 푸른 버들이 봄 강을 건너는(梅柳渡江春) 계절에 운문사승가대학에 방부를 들인 신입생 스님들! 환영합니다. 사회에서는 입학이라고 하지만 절에서는 방부를 들인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찰에서 대중이 수행하는 큰방에는 각자의 소임을 정하여 붙이는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하는 소임표가 있습니다. 용은 물에 사는 짐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짐승이고, 꼬끼리는 육지에 사는 짐승 중에서 가장 뛰어난 짐승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일체 중생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부처님의 덕을 용상덕龍象德이라고도 합니다.

대중스님들의 소임을 기록한 것을 용상방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임을 통해 용상의 대덕인 부처님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문사에 거주하는 대중들도 한 철(3개월)마다 모두 각각 맡은 소임이 이 용상방에 올라옵니다.

원효元曉(617~686) 스님이 지은 『발심수행장 發心修行章』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 같은 용상의 덕 갖추기를 바라서 기나긴 고통을 잘 참아내고, 부처님의 경지인 사자좌에 앉기를 기약하여 영원히 욕망과 쾌락을 등질지어다(망용상덕 능인장고 기사자좌 영배육락 望龍象德 能忍長苦 期獅子座 永背慾樂).

원효 스님은 초심자인 우리들에게 부처님이 되기를 바란다면 길이 모든 괴로움을 참고 욕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수행의 요점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고려시대 지눌知訥(1158~1210) 국사가 초심자들을 훈계한 『계초심학인문誠初心學人文』에서, '이미 출가하여 청정한 대중에 참여하였거든 항상 부드럽고 화합하고 잘 수순하기를 생각하라(기이출가 참배청중 상념유화선순 既已出家 參陪清衆 常念柔和善順)' 라고 했습니다. 이는 출가 수행자의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화합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위 성현들의 말씀과 같이 대중 속에 살아가는 스님이라면 누구나 각각의 소임을 가지게 되고, 이때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바로 인욕과 화합입니다. 인욕과 화합은 다른 듯 하나 실제로는 같은 뜻입니다. 인욕하게 되면 화합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운문사에는 많은 전각들과 건물들이 있는데 각각의 용도에 맞는 이름을 적은 현판이 걸려 있습니다. 처음 방부를 들인 1학년 스님들이 특히 눈여겨보아야 할 전각이 있는데 바로 육화당六和堂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는 종무소채입니다.

운문사 소임자 스님들의 활동공간을 제가 육화당이라고 한 이유는 화합을 아주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 육화란 여섯 가지로 화합함을 뜻합니다. 몸으로 화합하여 같이 살고(신화동주身和同住), 입으로 화합하여 다툼이 없게 하며(구화무쟁口和無諍), 뜻으로 화합하여 함께 기뻐하고(의화동열意和同悅), 보는 것으로 화합하여 한 가지로 이해하며(견화동해見和同解), 계행으로 화합하여 같이 준수하고(계화동준戒和同遵), 이익으로 화합하여 고르게 분배한다(이화동균利和同均)는 것이 그것입니다.

'만약에 인욕행이 없다면 온갖 일들이 모두 이루어지지 않는다. 若無忍行 萬行不成' 이라고 했듯 대중의 소임을 살면서 인욕하고 화합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한 철 수행 정진 잘 합시다. ☸

청도 운문사의 나한신앙 고찰 2

일진 / 운문사승가대학 강주

목 차

- I. 서론
- II. 나한신앙의 유래와 특징
 - 1. 나한신앙의 유래
 - 2. 나한신앙의 특징
- III. 운문사의 나한신앙
 - 1. 운문사의 창건 유래
 - 2. 오백전과 오백나한 기도 유래
 - 3. 오백전 오백나한 백일기도
 - 4. 운문사 오백나한은 곧 운문사 학인
 - 5. 사리암의 유래와 나한신앙
- IV. 결론



III. 운문사의 나한신앙

1. 운문사의 창건 유래

1718년에 간행된 운문사사적기(雲門寺事蹟記)에 따르면 557년에 한 신승(神僧)이 금수동(金水洞)으로 (현 북대암 주변) 들어와 수도하다가 마침내 깨달음

을 얻고 절을 짓기 시작했다고 한다.

7년 동안 다섯 곳에 절을 세웠는데 서쪽 10여리에 대비갑사(大悲岬寺), 남쪽 7리에 천문갑사(天門岬寺), 북쪽 8리에 소보갑사(所寶岬寺) 등 오갑사(五岬寺)였다.

오갑사 중 대작갑사는 지금의 운문사인데 작갑(鶴岬)이란 이름은 까치가 찾아준 벽돌로 탑을 조성했기 때문에 붙여졌다고 한다.

운문사 제1중창주는 원광 국사인데 원광이 중국에서 돌아온 600년(진평왕 22년)에 2년 동안 대작갑사에 머물다가 기술갑사로 옮겨 주석하면서 화랑 귀산과 추항에게 세속5계를 전수하여 화랑정신의 근본으로 삼게 했다.

제2중창은 보양(寶壤) 국사가 까치무리의 도움으로 절터를 찾아 절을 세우고, 대작갑사라고 했다. 이때가 933년(고려 태조 16년)이다. 937년에 태조는 갑사에 많은 전지(田地)를 내리고 사액하여 운문선사(雲門禪寺)라 하였다.

제3중창은 태조 왕건의 시납으로 용성의 토대를 마련한 고려 중기 원응(圓應) 국사, 학일(學一) 국사(1052~1144)가 주석하면서부터이다. 원응 국사 비문에서 “운문산문의 용성함이 근고(近古) 이래(以來)로 이와 같은 적이 없었다.”고 평했다.

운문사의 실제적인 역사는 보양 국사가 작갑사를 중창하고 태조 왕건이 운문선사 편액을 하사한 지점부터 시작되었다.

2. 오백전과 오백나한 기도 유래

오백전은 원광 국사(554~637)가 창건한 이래

중창과 중수를 거듭하여 왔다. 현재의 오백전五百殿은 불교정화 이후 비구니 초대 주지(1955-1962년 재임) 금용金龍 스님이 중수했고, 산내 암자 내원암, 청신암에 주석하고 있는 노스님들의 구술에 의하면 당시 내원암의 유섭 스님이 화주를 하고, 오백나한상도 적천사¹⁸⁾에서 모셔왔다고 한다.

오백전은 주불로는 석가모니불상을 좌·우 협시로는 미륵보살상과 제화가라보살상을 안치했다. 이 삼존상의 좌우에 오백나한상이 다양한 모습으로 봉안되었다.

필자가 어린 학인시절(1970년 초)에 동학同學들과 함께 오백전에 참배하러 가서 절을 할 때 맨 먼저 시선이 머무는 나한상을 시점으로 본인의 나이만큼 차례로 세어가다가 나이 숫자와 딱 맞는 자리의 나한상을 자기 나한님이라고 정하는 재미 겸 원칙이 있었다. 이때 우리는 마음에 품은 각각의 나한님이 한 분씩 있었고, 나의 나한님이 든든하게 나를 지켜주며 수행을 잘 하는지 감독한다고 믿었다. 그리고 부처님이나 관세음보살과는 달리 매우 엄격하고 까칠(독특함)함이 있는 성품이라서 매사에 더 조심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다. 어린 시절의 순수하고 분별없는 믿음이 오늘날 운문사가 오백나한 신앙도량으로 자리매김하게 된 배경인 것을 확신한다.

운문사에서 1987년 후반 오백나한 개채(채색을 새로 입힘)불사를 했는데 나한 한 분, 한 분 번호를 붙이면서 순서대로 비로전 한편으로 안치했고 그때 붙였던 번호가 499번까지였다. 500나한 중 한 분은 사리암 나반 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래서인

지 당시 원주소임이었던 해은 스님이 큰절 주지 명성 스님께 사리암 존자님도 개채를 해야 되겠다고 청하였다.

주지스님은 아직은 깨끗하고 개분한다고 하면 신도들 부담도 되는 일이니 안 하기로 했는데 어느 날 신도 한 분이 원주소임에게 이야기하기를 조상님 같은 할아버지가 꿈에 나타나 옷 좀 해달라고 청하는데 어찌 해야 되는지 상담이 있던 후 원주소임은 그 까닭을 이해하고 바로 큰절 주지스님께 말씀드리고는 즉시 개채를 마치고 큰절 오백나한 점안하는 날 함께 하게 되었다.¹⁹⁾

3. 오백전 오백나한 백일기도

2016년을 기점으로 정확히 38년 전인 가을 처음으로 오백나한 백일기도 수행불사가 시작되었다. 당시 운문사는 학인 숫자는 해마다 늘어가는데(당시 120여 명) 함께 숙식할 수 있는 방사가 부족한 상황이라서 산내 암자에서 통학해야 하는 실정이었다. 방사를 마련할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했다.

주지로 부임한 강백 명성 스님은 공적인 일을 성취하거나 개인의 수행에는 기도가 근본이라는 평생 원력 소신대로 오백나한 백일기도를 시작했다. 백일기도 첫 회에 모인 기도 동참자가 40여 명이었다.

첫 회 40여 명이 시작한 40여 년 전의 백일기도가 지금까지 한 해도 결하지 않고, 1500여 명의 불자들이 “오백나한과 함께하는 백일 간의 수행”으로 계속 이어가고 있다.

18) 적천사는 고려 보조국사 지눌知訥이 1175년(명종 5년)에 크게 중창하였고, 500나한상도 조성했다고 한다.

19) 당시 경주 불국사 조실로 주석하셨던 월산月山 화상(1912~1997)의 증명으로 점안을 주도해 주었다.

4. 운문사 오백나한은 곧 운문사 학인

쌀이 귀하고 간식이 아쉬웠던 70년대 초 주지 이태구李泰具 스님(제5대 1970~1974)의 꿈에 작은 동자승들이 한 무리를 지어 몰려와서 주지스님에게 우리도 따로따로 밥도 주고 사탕도 달라고 떼를 썼다는 것이다. 그 때는 정면의 삼존불(석가모니불·미륵보살·제화가라보살) 앞에 큰 불기로 세 개만 공양을 올렸었다. 꿈에 본 학인 같은 동자승들은 다름 아닌 오백나한의 현현으로 각각 공양받기를 원한다고 판단하여 아이스크림 그릇 같은 작은 불기(부처님 공양그릇)를 500개 마련하여 각각 500마지를 올리게 되었다.

또한 공양 올린 쌀은 필요한 곳에 오백나한들이 골고루 나누어 공양하고 있다. 그것은 끊임없이 500나한기도 공양을 올리는 일이 곧 각 처에서 중생회향 공양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5. 사리암의 유래와 나한신앙

사리암은 운문사 동남쪽에 위치한 암자로 나반존자의 사리굴이라 불렀다. 사리암은 937년(고려 태조 20년) 당시 당나라 유학에서 돌아와 후삼국 통일을 위해 왕건을 도왔던 보양寶壤 국사가 창건했고, 1845년 정암당靜庵堂 효원 스님이 중창했다.

사리암邪離庵은 문자 그대로 샅된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도량이라는 뜻이다.

일제 강점기인 1924년에 중축했으며, 1935년에

중수하여 현대에 들어와 1977년 비구니 혜은 스님이 원주로 부임하여 전기불사부터 시작하여 1980년에는 당시 부산 거사림회 회장 이인희李仁熙(1924년~2012년) 거사의 전적인 후원으로 3층의 요사를 신축하였고, 1983년 현재의 관음전, 자인실, 정랑 등을 개축하였다.

1) 사리암 나반 존자는 누구인가?

사리암에는 천연바위 굴 위에 천태각天台閣이 자리하고 있다. 천태각은 일명 독성각이라고도 하는데 1845년 신평 대사가 건립했고, 여기에 나반존자 상을 안치했다. 나반 존자는 불멸 후 미륵불이 출현하기 전까지 중생을 제도하고자 원력을 세운 분으로 천태산에서 선정을 닦으며 열반에 들지 않고 미륵불을 기다리고 있는 존자를 일컫는다.

홀로 고요히 선정에 들기를 좋아하여 깨달음을 성취했으므로 독성獨聖이라 불리기도 한다.

나반 존자의 “나반那畔은 저쪽 피안, 자반遮畔은 이쪽 언덕을 말한다. 번뇌망상에 얽혀서 나고 죽는 생사를 해탈한 경지, 번뇌의 계박을 여윈 저쪽 언덕, 이상경을 나반이라 한다. 번뇌의 계박에서 풀려나고 생사의 윤회에서 벗어난 것을 해탈이라 하는데 해탈한 경지의 존자이므로, ‘나무 천태산상 독수선정 나반 존자南無 天台山 上 獨修禪定 那畔尊者’”라고 기도한다.(명성 스님 법문집에서)

층암 절벽 위에 세워진 사리암은 나반 존자 기도처로 널리 알려진 까닭에 원근 각지에서 절실한 소원을 성취하기 위한 이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곳이다.

20) 강향숙은 『독성각의 나반 존자와 빈두로 존자와의 관계 재고』, 『인도연구』 제19권 제2호, 2014에서 나반 존자가 18아라한의 특징을 집약해 놓은 존재임을 밝히고 있다. 그렇다고 보면, 앞에서 명성 스님의 법문 내용에서 본 바와 같이, 나반 존자는 해탈을 성취한 존자이며, 법을 수호하는 존자로서 인식되어야 하지, 어떤 특정한 개별 아라한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나반 존자는 용공과 신통, 중생의 복전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으며 그러한 특징이 중생의 바람에 응하여 복전이 되어주고 보살행을 실천하는 성자로 신앙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다. 즉 나반 존자는 대승의 보살도를 행하는 나한임을 알 수 있다.²⁰⁾

2) 영험靈驗이란 무엇인가?

영험은 불·보살 등에 기도를 하거나 경전을 독송하여 그 결과로 나타난 영묘靈妙하고 신기한 징조를 말한다. 영묘불가사의靈妙不可思議한 효험效驗·영응靈應·영감靈感이라고도 하며 간절히 집중했을 때 나타난, 현실에서도 분명하게 느껴지고 보여지는 현험現驗과 기도 중 잠시 깜박 졸았을 때 혹은 꿈에 보이는 명험冥驗의 현상이 있다.

본 고찰에서는 반드시 영험을 얻기 위한 의도는 없었지만 우연히 나타난 영험과 처음부터 몸과 마음을 고르게 하고 시일도 정해놓고 가피력加威力을 궁극의 목적으로 절실하게 빌어서 나타난 신통불가사의 영험자의 사례를 기술하고자 한다.

영험사례 ① <병원 법당 법사스님의 꿈>

1989년 해은 스님(1936~2015)이 사리암 불사

중 크게 병이 났다. 수술받기 위하여 서울대학병원 12층 병실에 입원했다. 수술하기 이틀 전날 밤 병원 법당스님 꿈에 운문사 도량 내의 법당 부처님들이 다 병원 2층으로 들어오는 것이 보였다. 비로전 부처님, 관음전의 관세음보살, 명부전의 지장보살, 오백전의 오백나한, 사리암 나반 존자까지... 맨 마지막으로는 운문사 간경대중들이 모두 여범하게 가사·장삼을 수하고 차례대로 이층 복도까지 꼭 채우며 들어오는 것이다. 신기하게 여긴 법사스님은 보호자스님에게 꿈 이야기를 하니, 우리 스님은 12층에 계시는데 2층으로 모이신 일이 아쉽다는 생각을 했다고 하는데, 수술실이 바로 2층이었다.

영험사례 ② <권 거사님의 사업성취>

대구에 거주하는 권 거사는 구산 스님으로부터 일찍이 지명智明이라는 불명을 수지하였다. 사리암에 정식으로 신도로서 등록 접수한 해가 1981년이라고 하니 35년 전부터 시작된 나반 존자 기도영험이다. 당시 사업을 건축업과 염료染料공장을 운영하면서 대구지역 경제 활성화의 주역을 담당했다. 집안 내력으로 55세까지 살고 가신 조상이 없는 사실을 알고 수명장수 기도를 시작했다. 신도가 된 날부터 나반 존자와의 약속은 매달 3일기도 계속하

기, 반드시 사리암에서 기도하기, 단 온 가족이 다 함께 다닐 수 없으니 반드시 불교 신행 생활하기 등 동 물론 자신과의 약속이지만 나반 존자의 강요였다고 말했다.

본인은 든든한 나반 존자 백으로 무엇이든 다 된다고 믿으며 매달 3일기도를 하는 중 까만 옷을 입고 있는 저승사자가 데리러 왔다. 하지만 그는 크게 놀라지 않으면서, “니, 나반 존자한테 죽고 싶나?”라는 가벼운 한 마디를 했고 그 말에 저승사자는 슬그머니 물러가더라는 것이다.

본인의 현재 나이 76세인데 지금까지 견제한 것은 나반 존자 영험으로 알고 있다.

또 대구 신암동에 팔아야 할 땅이 계속 팔리지 않아서 이번에는 다른 지역(김천 모사찰) 절에 가서 기도했는데 안 되어 다시 약속의 사리암 나반 존자 기도를 하니 거짓말처럼 성사되어 결국 사리암 관음전 불사에 시주하여 완공하였으니 사리암 불사는 기도 원력으로 이루어졌다고 믿는다.

IV. 결 론

운문사는 오백전 외에 나반 존자를 모신 천태각을 사리암에 따로 조성한 까닭을 살펴보면, 운문사가 나한신앙의 중심도량임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 또한 나반 존자는 16나한의 특징을 집약한 존재이다. 그렇기에 운문사는 500나한과 16나한을 모두 모시고 있는 셈이 된다.

이상의 논의를 토대로 운문사의 나한신앙의 방향성을 모색해 볼 수 있겠다. 운문사는 오백전이 지닌 유구한 역사와 그 속에서 묵묵히 신앙되어 온 나한신앙의 본래 모습을 회복하는 중심도량으로 거듭나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서 운문사의 나한신앙은 현재의 개인적인 복을 비는 사적인 영역에서 공적인 영역인 중

생구제와 국가의 안녕을 기원하고, 부처님의 정법이 쇠퇴하지 않고 확고해지고 널리 퍼지기를 발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이는 조선시대 이후 왜곡된 나한신앙의 본래 모습을 찾는 것이자, 불교가 이 사회에서 무엇을 해야 할 지를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이것이 개인의 기도와 발원이 금지되거나 침해를 받아서는 결코 안 된다.

운문사가 나아가야 할 길, 운문사가 부처님 법에 근거해서 개인과 중생의 깨달음을 실현하고, 불국정토 건설의 길에 앞장서야 할 이유는 바로 “정법의 수호자를 모신 도량”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大阿羅漢雜觀聖多羅所說法住記』, 大正藏18
- 『妙法蓮華經』, 『五百弟子授記品』, 大正藏4
- 『三國遺事』, 卷3 『塔像4』, 前後所將舍利
- Milin, 266, Isaline Blew Horner, 『The Early Buddhist Theory of Man Perfected』, New Delhi: Oriental Books Reprint Corporation, 1979.
- 붓다고사 스님 지음, 대림 스님 옮김, 『청정도론』1, 울산 : 초기불전연구원, 2005.
- 에띠엔 라모트, 호진 옮김, 『인도불교사』 2, 서울 : 시공사, 2006.
- 강향숙, 『독성각의 나반 존자와 빈두로 존자의 관계 재고』, 『인도연구』 제19권 2호, 2014.
- 김희경, 『朝鮮後期 羅漢像 研究』, 명지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2.
- 정병삼, 『고려와 조선시대의 나한신앙』, 『나한』, 2003.
- 정제규, 『淸州 思惱寺址와 高麗後期 羅漢信仰의 展開』, 『온지논총』 제24집, 2010.



부처님과 과 하나 되는 시간

범건 / 사집과

법고 소리에 깨어는 世間衆

북의 소리를 들은 水府衆

은판의 소리를 듣고 모여든

空界衆

법종의 타종 소리를 들은

欲界色界 無色界 衆生

그리고 지옥의 중생을까지

잠시 형벌을 면하여

부처님의 法會場에 모여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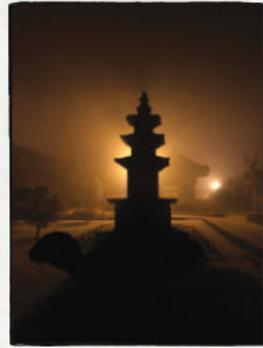
獻詩 - 은사스님의 百日齋에 부치는 詩

‘내 나이 몇 살인가! 참살 멍살 갈보리쌀이니라.’

영덕 / 운문사승가대학 학감



가운데 만공 큰스님, 왼쪽 아래부터 수연 스님, 성오 노스님, 수업 스님, 원담 스님



존경하는 은사스님!
미처 슬피할 새도 없이
경황 없이 지나간 시간
다비장 이후
찬바람 부는 쇠골 바위에는
남기신 육신의 한 줌 흰 재마저
바람에 날려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젠 그 어느 곳에서도
봐올 수 없다는
슬픔에 목이 메이지만,

스님을 뵈고자 한다면
길이 없는 곳에서
길보다 빠른 길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永遠湛寂한 스님의 面目은
본래로 맑고 신령스러워
생사도 없고 열반도 없는데
금일 德林堂 修蓮 노스님은
어느 길에서 계십니까!
雪靖方丈스님의 영결법어가
견성암 앞마당에 번개처럼 꽃힐 때

아홉 살 사미니의 잔영은
85년의 법랍을 안고
無任 속으로 떠나고 계셨습니다.

스님은
'제법실상' 을 닦는 자로서
兀兀不坐禪! 울울하게 앉아 좌선하지 않아도
가슴 속에 늘 禪旨가 있었으며
滔滔不持戒! 도도하게 계율을 말하지 않아도
삼현 십성의 의계 속에서 걸림이 없었습니다.

밥 먹고 차 마시는 일상 속에서
地水火風 사대의 무상함을 따라
유유자적하셨지만 늘 수행자 본분의
中道行에 머물러 계셨습니다.
기특한 생각이나 별스런 기별 같은 건
추풍낙엽처럼 돌아보지 않았으나
관세음 관세음 자비하신 분을
찾는 일은 한결같이 간절하였습니다.

옛 어른의 기풍을 따라
덕숭산 선풍을 배우며
아홉 살에서 스무 살까지 열한 번의 하안거는
당신 이력서에 당당하고
자신감 있게 쓰여 있었습니다.
바늘구멍에서 황소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산중 큰 어른스님들이 놓치셨을 리 만무합니다.

정혜사에서
기본 교육을 마치시고
남장사 관음강원에서 四集을 마치신 후
더 큰 배움에 목말라 할 때
'어느 강원에서든 이 확인을 받지 말라' 는
청운당 善福 노스님의 추상 같은 사발통문은

당시 禪에 매진하던 德崇家風의 初志一貫
선풍을 엿볼 수 있는 일화입니다.

진정한 출가자의 권리란
수행자 자신의 공부를 위하여
더 처절하게 매진하는 일인 줄 아시고,
그런 다음 중생의 마음에 좋아하는 바를 따라
同事攝의 길을 걸으셨지요.

佛子 修蓮은 머리 조아려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 귀의하오니
원컨대 修蓮은 三業圓明 六根清淨 聞思修 3혜력으로
단박에 삼마지에 들어 無生을 증득하여지이다.
원컨대 修蓮은 一聞千悟, 대충지를 얻어
四無碍慧를 얻고 無緣慈悲의 힘으로
중생제도하여지이다.

원컨대 修蓮은 세세생생 梵行清淨 發心出家
自利利他 續佛慧命 제불의 막대한 은혜에
보답하여지이다.

평생 간직하신 삼대서원 잊지 마시고
速還娑婆하시어 중생제도 마치시기를 仰望합니다.

부재를 통해 새삼
스님의 한평생이 얼마나 소중한
귀하신 분인가 절절이 느끼며
견성암의 한 분 한 분 노장님들
승가 속의 어른스님들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이
그대로 움직이는 보배인 줄 알겠습니다.

스님은 남은 저희들에게
못다 전해주시길 말씀이 제됩니다
- 고귀한 부처님 자식이
賤民이 되지 않도록 自重自愛하라

북극성처럼 명확한 목표와
태산 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不動의 고지를 향한 남자로
깊은 물 같은 침묵으로
바위보다 무거운 일언을 하라
僧重則法重하니 무엇보다
자기 자신의 수행을 위하여
外緣을 이겨내고 守分盡心하라-

스님은 가셨지만
저희들은 스님의 뒤를 이어
산중의 기풍을 수지하며
佛之聖風 禪之宗刹의
대업을 성취코자 이 한생
성실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만공 스님의 看月齋 천일기도 당시
茶시봉을 들던 당신, 독립을 기원하시던
큰스님의 간결함은 어린 소녀의 눈에도
비켜갈 수 없었습니다.
이후 '만공선양회학술대회'에서
이렇게 큰스님의 행적을 중언하셨지요

'일본 순사들의 접근이 어려운 외판점
간월암을 골라 천일불공을 시작하셨어요.
당시 대외적 명분은 '평화기원' 이었지만,
실제로는 독립을 기원하는 불공이었어요.'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우리 절 인근에 많다는 말씀을 하실 때
나는 숨소리도 제대로 내지 못 하고
그 말을 들었어요. 당시만 해도 독립의 날을
기대조차 할 수 없는 나날이었지만,
1945년 8월 만공 스님이 천일불공을 마치신 지
3일 만에 거짓말같이 光復이 되었어요.'

광복 소식을 들으시고 뜰 앞의 무궁화 가지를
꺾어서 쓰신 글씨가 '世界一華' 라고,
'대한 독립을 기원하는 만공 큰스님의 佛供처럼'
스님께서도 평생 事事佛供을 품은 채 사셨습니다.

길 떠나기 며칠 전
스님께서 남기신 마지막 소식은,
'내 나이 몇 살인가! 참살 멍살 갈보리쌀이니라.'

묵묵히 바라보고 신중하게 처신하며
獨坐大雄이 十字架頭에 나서는 명분이
如佛如法한지, 목숨을 걸 만한 명분에도
道가 아니면 움직이지 않으며
오로지 本分을 위하여 열심히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은사스님 오늘이 있기까지
스님과 함께 한 모든 날들이 걸음걸음 고마웠습니다.
크신 은혜 잊을 수 없어
평소 좋아하시던 布袋和尚 계송 적어보내오니
받아보시고 꿈길에나마 소식주십시오.
늘 그립습니다.

불기 2563년 己亥年 4월 18일(음력 3월 14일) 백일
재에 올리는 글.
상좌 영덕 合掌九拜 올립니다.

추신:
我有一布袋 나에게 포대 하나 있으니
虛空無罣碍 허공처럼 넓어 걸림이 없네
展開遍十方 열어 펼치면 온 세상 다 겨안고
入時觀自在 一心으로 돌아오면 觀自在라 🍀

마음의 등불

등불은 부처님의 마음이자 모든 생명이 지닌 마음의 등불
모든 생명은 무한하고 영원한 마음의 등불로
항상 우주를 환희 비춘다.

부처님오신날에 등불을 켜는 것은
이 같은 마음의 등불을 표시하며 자축하기 위한 것

우리 절에서는 초파일 등불을 따로 켜지 않는다.
마음의 등불은
한낮에 뜬 해처럼 항상 우주를 비추고 있으니,
또다른 등불은 대낮에 촛불을 켜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등불을 켜지 않는 것이나 켜는 것이나
모두 좋은 일이다.

등불을 켜지 않는 것은 그것의 본질을 알기 때문이요
등불을 화려하게 밝히는 것은
비단 위에 꽃을 던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성철 스님 말씀 중에서 



몸을 통해 마음 바라보기

유덕 / 운문사승가대학 부교수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떠서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마음을 한 순간도 쉬지 않고 사용하고 있지만, '마음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디에 있느냐?' 라고 물으면 모양을 말할 수도 찾을 수도 없습니다. 『농암경』에서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부처님의 질문에 아난이 그토록 찾았건만 찾을 수 없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마음은 모양과 색이 있는 색법色法이 아닌 심법心法에 포함되므로 모양이 없으니 찾을 수 없다는 답은 불교 교리적으로 당연하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처님이 아난에게 질문하신 바와 같이 마음을 보려 하고 찾으려 하는 것은 수행의 어느 시점에서 필요한 방편일 것입니다.

이와 같이 마음의 실체를 찾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마음을 어떻게 사용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몸을 살펴보는 일입니다. 몸은 우리의 마음보다 솔직하며 몸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조작이 있을 수 없으며 속일 수 없어 진실됩니다.

화를 내었다든가, 생각을 골똥히 오래 하였다든가, 슬픔에 빠졌을 때 우리의 몸 상태를 바라보면 바로 느끼고 알아챌 수 있지요.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은 명치가 막힌 느낌이 들고, 어깨가 무거우며, 심장에 통증이 생기거나 가슴이 답답해질 것입니다.

또한, 행복한 마음으로 선행을 하거나, 남이 기뻐하는 것을 보고 함께 기뻐한다든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양을 하고, 예불을 모실 때마다 수행의 길에 들어섰다는 사실에 대해서 무한한 감사의 마음을 내며,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를 대했을 때의 몸 상태는 어떠한가요? 몸이 있다는 사실도 잊을 만큼 몸은 가벼우나 들뜨지 않아 마음에 중심이 잡혀 있으며 지혜로운 판단을 할 수 있는 평온한 마음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이러한 몸의 반응을 토대로, 우리가 낸 마음을 거슬러 살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몸의 느낌을 통하여, 스스로가 낸 마음자리를 바라보고 알아차려, 내려놓고 비우는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예를 들면, 위장이 단단해지며 소화가 안 된다면, 음식을 잘못 먹었을 경우도 있지만 집착이 들어간

상속되는 생각을 많이 낸 몸의 반응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 바로 스스로가 낸 생각과 접촉을 돌아보고 알아차려 내려놓을 수 있다면 서서히 몸에 들어간 긴장이 이완되며 위장도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비워낸 마음의 공간에는 자연스럽게 알아차림에 대한 감사함과 겸손함이 깃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을 바라봄(觀)을 통해 마음을 바라보는 것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불교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잡히지도 보이지도 않는 마음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부처님께서도 마음보다 먼저 몸을 이야기하셨습니다. 초기불교 전통의 주요 수행인 사념처四念處 수행 가운데에서도 신념처身念處가 가장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가르침의 순서이기도 합니다.

사실 눈에 보이고 물질적으로 드러나는 몸을 바라보는 관觀이 익어지지도 않고 세밀하지도 않다면,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움직임과 몸과 마음의 상관관계까지 바라볼 수 있을까요?

사념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 비교적 많이 알려진 『염처경』뿐만 아니라, 〈맛지마 니까야〉의 제 119경인 『염신경』에서도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호흡, 행주좌와, 모든 거동과 자세 등을 항상 알아차리고 살피며 몸을 바라보는 수행만으로도 삼매를 이루고, 색계 사선에 도달하며, 육신통을 이루어 결국에는 해탈을 이루게 된다고 부처님께서 설하셨습니다.

『염신경』의 한 구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비구들이여, 누구든지 ‘신체에 대한 염’을 익히고 끊임없이 닦는 사람은 지혜에 기여하는 모든 선법善法을 수용하게 된다. 비구들이여, 마치 큰 바다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바다로 흘러드는 모든 강물도 수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비구들이여, 바로 이와 같이 누구든지 ‘신체에 대한 염’을 익히고 끊임없이 닦는 사람은 지혜에 기여하는 모든 선법을 수용하게 된다.”

신체의 감각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하지 과거와 미래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하여, 몸에 대한 알아차림의 수행은 우리의 의식을 현재에 분명하게 머물도록 도와줍니다. 감각은 생각이나 감정보다 분명하게 다가옵니다. 몸에 대해 알아차려 갈수록 스스로가 낸 마음자리에 대해 좀더 세밀하게 알아가고, 선법과 불선법의 마음을 내었을 때의 몸의 반응을 바라보며, 점점 몸과 마음이 평안하고 가벼운 우리의 참본성인 선법을 선택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참본성에 부합하는 행위와 생각을 하여 삶을 그 본성에 합치시키고자 노력한다면, 몸은 가볍고 긴장이 없이 이완되며, 결국에는 통증이나 병의 형태로 나타나는 중세가 없어질 것입니다. 순간 순간 몸을 바라보는 것을 통해 마음을 비추어 보아 누구에게나 있는 부처님의 마음을 쓰면서 삶을 살아내고자 한다면 깨달음은 저 멀리 어딘가에 있는 요원한 이야기가 아닐 듯합니다. 『화염경』의 「정행품」에 부처님께서 설하신 모든 공덕은 선용기심善用心에서 나오고, 그것이 바로 도道라는 말씀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니깐요. 🍃

불교 호스피스와 영적 돌봄

동심 / 사교과

목차

1. 들어가는 말
2. 호스피스란 무엇인가
3.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공 유형과 종류
4. 불교 호스피스
5. 영적 돌봄과 영적 돌봄가
6. 연명의료 결정제도
7. 나가는 말

1. 들어가는 말

우리는 태어남과 동시에 죽음을 마주하고 있다. 죽음은 누구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로 인해 죽음을 애써 외면하거나, 거론조차 꺼리기도 한다. 죽음을 삶의 한 과정이 아닌 자신에게 일어나는 하나의 불행한 일로만 생각하는 부정적 인식으로 인해 갑자기 죽음에 직면하게 되면 당황하며 고통에 빠져 자신의 삶을 제대로 정리하지 못하고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우리는 자신의 내·외적 문제와 죽음에 관한

깊은 자각을 하며 사유를 통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할 권리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누구나 관심을 가질 수 있으나 결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인 불교 호스피스와 영적 돌봄의 필요성을 숙고해 보고자 한다.

2. 호스피스(Hospice)란 무엇인가

호스피스(hospice)란 ‘임종을 앞둔 사람들의 안식처’의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호스피스란 단어가 주는 부정적 인식(호스피스=죽음이 확실시된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인해 정작 호스피스가 필요한 환자들이 이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자 최근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3.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 제공유형과 종류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의 제공유형은 크게 입원형, 자문형, 가정형 3가지로 나뉜다.

- 입원형: 호스피스 독립 병동에 입원한 환자에게 호스피스 서비스 제공(대상질환: 말기 암 환자)
- 자문형: 일반 병동이나 외래에서 호스피스팀이 서비스 제공(대상질환: 말기 환자로서 암, AIDS, 만성폐쇄성 호흡기 질환, 만성 간경화 질환)
- 가정형: 환자가정에 호스피스팀이 방문하여 서비스 제공(대상질환: 말기 환자로서 위 4개 항목 동일)

호스피스 완화의료서비스로 제공하는 주요 돌봄은 다음과 같다.

- 통증, 신체적 돌봄: 통증, 호흡곤란, 구토, 복수, 부종, 불면 등 고통스러운 신체 증상 조절
- 심리적 돌봄: 환자와 가족의 불안, 우울, 슬

품 등의 심리적 고통을 완화

- 사회적 돌봄 : 경제적, 사회적인 어려움을 파악하여 가능한 자원을 총동원하여 지원
- 영적 돌봄 : 삶의 의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등에 의한 고통을 경감시키기 위해 노력
- 임종 돌봄 : 임종 시기의 신체적, 심리적 고통을 완화시키고 가족이 임종을 준비하며 지지
- 사별가족 돌봄 : 사별 후 가족이 겪을 수 있는 불안, 우울 등의 어려움 극복을 도움

이러한 전인적인 돌봄을 위해서는 다학제팀의 구성이 요구되는데,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성직자(영적 돌봄가), 전문치료사(물리치료, 작업치료, 음악치료, 미술치료 등), 영양사, 약사, 자원봉사자 등 환자와 가족 돌봄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¹⁾

4. 불교 호스피스

1) 불교 호스피스의 정의

흔히 불교를 자비의 종교라고 말한다. 이는 자비사상이 부처님의 첫 가르침부터 대승불교의 성립과 발전에 이르기까지 불교 역사와 함께 해왔기 때문인데 부처님께서서는 병자를 돌보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만약 병든 비구, 비구니에게 보살피 줄 만한 제자가 없으면 대중이 차례를 정하여 병자를 간호하도록 하라. 병자를 돌봐주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느니라. 누가 되었던 병자를 돌보는 것은 나를 돌보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앞으로는 비구, 비구니들끼리서

로서로 돌보도록 하라. 만약 병든 사람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서로 돌보지 않으면 법률로써 다스리리라. 이것은 내가 내린 명령이니라.” “설사 나에게 공양하거나 과거의 모든 붓다에게 공양하더라도 나에게 배운 그 복과 덕은 병든 사람을 돌본 것과 다름이 없느니라.”²⁾

붓다께서 정신과 육체가 병든 중생을 보살피주신 것처럼 “불교 호스피스”는 자신의 삶과 죽음을 잘 돌보고 준비하며, 타인의 고된 삶과 죽음의 여정을 함께 손잡고 걸어주는 수행의 여정이다. 그리고 병든 환자를 간병·간호하는 것이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만큼 중요한 복전이 된다는 가르침은 간병의 공덕을 매우 수승한 공덕으로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불교 호스피스는 보살행의 중요한 공덕이요, 정점인 것으로 받아들여지므로 자비심의 극치를 이룬 간병을 통해서 이기심을 버려야 하고 환자에게 늘 근면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2) 불교 호스피스 교육의 필요성

불교 호스피스 교육은 붓다의 참된 가르침을 깨달아가는 육바라밀 수행을 통하여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으로 불국정도를 이루어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추구하고, 호스피스라는 도구를 통해 일체중생이 고통을 여의고 행복에 이를 수 있도록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교육은 불교의 자비정신에 대하여 실천적으로 중요한 단계인데 불교의 영성인 자비를 시대에 맞게 실현하고, 수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유하게 하므로 스스로 삶의 변화를 시도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죽음에 대한 인식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불교 임상현장의 실정을 보아도 매우 절실히 요구되

1) 한국원화의료학회, <http://www.hospicecare.or.kr/>

2) 미산 스님 법문 - 「아픔과 돌봄」, 2009년 1월 11일 제33회 팔정도 가족법회에서 하신 법문 중 「증일아함경」 구절 재인용
<https://cafe.naver.com/sangdomeidation/4008>

는 것이 불교 호스피스 교육이다. 교육을 통해 호스피스 봉사자들을 배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이 임상에서 적절한 활동을 위해서는 양질의 프로그램과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특히 승가 교육의 일환으로써 스님들의 불교 임상포교를 위한 교육이 요구되며 사찰이나 포교현장에서 스님들과 신도들의 삶과 죽음의 질을 높여줄 것이라 본다.

3) 불교 호스피스 교육기관

불교 호스피스 교육은 생사를 한 선에 놓고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자기성찰과 새로운 삶의 에너지를 발견할 수 있다. 또한 필요한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현장에서 영적 돌봄에 활용될 수 있도록 수련해야 한다. 이렇게 불교 호스피스 영적 돌봄 교육을 통해 영적 소통능력을 계발하고 영적 돌봄가의 전문성 훈련교육을 받음으로써 또 한 명의 보살(Bodhisattva)³⁾이 출현한다. 즉 중생을 고통으로부터 구제하고 한편으로는 자신의 영적 성장을 궁구해가는 수행자인 영적 돌봄가가 탄생되는 것이다.

불교 호스피스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실행하고 있는 곳으로 전국비구니회의 호스피스 심화과정교육, 환희불교복지대학의 호스피스 교육과정, 대구 불교호스피스센터의 호스피스 자원봉사자 양성교육, 생사일여회 연수교육 등이 있다. 특히 '정토마을, 마하보디 교육원'은 생사의 장 호스피스, 영적 치유 에너지 강화훈련 솔마더(Soul mother), 조계종 승려연수 불교 호스피스 영적 돌봄, 보디사트바 CPE 등의 교육을 한다.

현재 타종교에 비해 불교 호스피스 관련 교육기관은 턱없이 부족하다. 많은 불자와 일반인들이 쉽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호스피스 시설이나 교육기관의 증설이 필요하다.

5. 영적 돌봄과 영적 돌봄가

영적 돌봄이란 육체적, 정신적, 정서적, 종교

적, 사회적인 총체적인 돌봄을 의미한다. 돌봄은 돌보는 사람이나, 돌봄을 받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연약한 사람들이고, 그 속에서 교제를 나누고 내적 치유와 해방과 변화를 경험하는 기회라고 정의한다.

특히 불교 세계에서 현대의 영적 돌봄은 상호 관계적이며, 개인의 체험을 보다 공감적이고 수용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하는 수행자 중심의 흐름, 부처님과 수행자 개인의 깊은 교제성을 중시하는 경향을 띤다.

영적 돌봄가는 우리 자신의 내면을 주의 깊게 바라보고 귀를 기울여 우리의 영성이 깨어나도록 침묵하는 법을 훈련해야 한다. 또한 자신과 상대방을 정확히 인식하며 기쁨을 주고받고 진심으로 들어 줌으로써 내면의 아픔에 공감하여 호스피스 대상자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⁴⁾

특히 말기 환자의 경우에는 죽음을 잘 맞이하도록 돌보아야 한다. 부드러운 접촉과 미소 그리고 좋은 향기가 말기 환자들의 무감각한 정서에 도움을 주고 외로움에서 벗어나게 하여 자신들의 상태를 받아들이는 데 도움이 된다.⁵⁾ 또한 호스피스 대상자들의 다양한 심리변화 과정을 잘 이해하여 지지해 줌으로써 편안한 임종을 맞이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 때 돌봄가는 고통과 상실을 인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6. 연명의료 결정제도

인간은 존엄한 존재이며 우리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살 때 존엄이 지켜진다. 스스로 삶을 책임지는 태도는 죽음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포함한다. 구체적으로 만약 내가 현대 의학적으로 회복 불가능 상태가 된다면 어떤 연명 시술을 받을 것인지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없는 상태일 때는 대신 결정해 줄 사람을 지정해서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최후 순간까지 스스로 신념에 따라 살고 죽음

까지 책임지는 삶을 위해 2016년 2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단계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 법에 따라 연명의료결정제도가 2018년 2월 4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는 의학적으로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받고 있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라면, 환자의 의향을 존중하여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존엄사를 인정하게 된 것이다.

존엄사는 무의미한 연명치료(기계호흡이나 심폐소생술)를 중단하고 자연적 죽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인간으로서 지녀야 할 최소한의 품위를 지키면서 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⁶⁾ 바로 불교 호스피스가 해야 할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환자와 그 가족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을 이루어야 하며 그로부터 확신을 가져야만 사별 후 남겨진 가족들이 후회나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상실감을 이겨낼 수 있다.⁷⁾

7. 나가는 말

부처님과 같은 길을 가는 우리는 상구보리 하화중생上求菩提 下化衆生을 실천하기 위한 보살행을 바탕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상이 허망한 줄 알고 상을 여윌 줄 알아야 보살이라 할 수 있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처럼 특히 영적 돌봄을 하는 사람은 무상無相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

죽음의 질은 자신 삶의 질의 결과라고 볼 수 있

기에 삶 안에서 자신의 존재적 내면을 잘 돌보는 것도 중요하며 언젠가 맞이할 마지막 여정을 미리 생각해 보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일 것이다.

앞으로 불교적 영성(자비심)에 관심을 기울이고 치유의 장에서 적용이 되도록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온전한 치유와 성장을 통해 상생相生을 이루고 돌봄과 수행을 통합해 무상정등정각無上正等正覺, 아누다라삼막삼보리의 길로 나아가는 여정에 많은 보살(Bodhisattva)들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능행 스님, 「불교 호스피스 교육과 제도 확립 방안」
-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 돌봄」, 마하보디교육원, 2018
- 헨리 나우웬, 「돌봄의 영성」, 2014 두란노 서원

<참고사이트(site)>

- 고흥석 신부, 암 환자를 위한 영적 돌봄 <https://www.slideshare.net/r1fjqt/ss-3853096>
- 국민건강 보험공단 공식 블로그 : <https://blog.naver.com/nhicblog/221079923600>
- 국립암센터 <https://kbha.kr/>
- 국립암센터 호스피스 완화의료 <http://hospice.cancer.go.kr/index.do>
- 정토마을 마하보디 교육원 <http://www.mahaedu.org/index.php?page=html&mc=0502>
- 미산 스님 법문 - 아픔과 돌봄, <https://cafe.naver.com/sangdomediation/4008>
- 한국불교호스피스협회 <https://kbha.kr/>
- 한국완화의료학회 <http://www.hospicecare.or.kr>

3) 깨달음을 통해 윤회를 벗어나 열반에 이른 상태를 말하는 Bodhi와 더러움에 물들지 않은 맑은 존재의 상태인 Sattva를 합성한 산스크리트어로 초기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란 뜻으로 보리살타라 음사하였고 대승불교에서는 깨달음에 이른 존재라는 뜻으로 보살이라 음사하였다. <http://www.mahaedu.org/index.php?page=html&mc=0502> 마하보디 교육원

4) 헨리 나우웬, 「돌봄의 영성」, 2014, 두란노 서원
치유란 무엇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비우는 일이다. 그래야 고통당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 줄 수 있으며 경청은 매우 능동적이고 지극히 민감한 형태의 돌봄이다.

5) 승려연수, 「불교호스피스 영적 돌봄」, 마하보디 교육원, 2018

6) 국립연명관리의료기관 <https://www.lst.go.kr/decn/establish.do>

7) 국립암센터 <https://kbha.kr/>



당당한 수행자의 향기로 주인공이 되어라

- 백담사 기본선원 유나 영진 스님 탐방기 -

유심 / 대교과

배움에 목마른 우리처럼 가물었던 겨울, 그 겨울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시켜 줄 선지식을 만나기 위해 설악산 백담사 유나스님을 뵈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님. 간화선과 무문관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무문관無門關의 관문을 나오는 열쇠는 생사관, 즉 생사를 타파하고 견어차고 나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기간 내에 문을 타파하지 못 하고 있으니, 문을 열어주고 나오시오~ 하는 것이지요.(웃음)

이 관문을 여는 것이 화두話頭로 수행하는 간화선看話禪인데 이 화두타파를 해야 생사관을 해결하고 문을 차고 나오는 겁니다. 간화선은 화두를 들고 참구에 들어가는 것인데 무문관은 외부의 방해 요인이 없고 외부 요인을 완전히 차단시켜 오롯이 화두 하나 챙기는 것입니다.

간화선은 앉아서 집중하여 성성적적惺惺寂寂하지만 화두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고 사유분별을 끊어 버리고 화두를 통해 몰입하여 폭발시키는 거예요. '아~ 이럴 것이다' 하는 순간 사구死句가 되어 죽은 말이 됩니다.

송나라 대혜종교 선사께서 스님들이 수준 높은 선문답을 나누는 모습을 보았는데 자세히 보니 벽암록을 외워버린 거였어요. 당시 수행자들이 문자선, 의리선에 빠진 것을 보고 선사는 벽암록을 모아 불질러 버리면서 알량한 지식이 아닌 문자와 하나가 되라고 주장하셨지요.

화두話頭의 중요성과 드는 법이 궁금합니다.

화두 드는 것은 금을 채취하는 과정과 같아요. 금은 광석에서 나오지요? 금은 광석을 용광로에 녹이고 불순물을 제거하는 제련과정을 통해 금만 남는데, 이렇게 만들어진 금은 다시 광석에 넣어도 금 그대로예요. 한번 제련된 금은 다시 광석으로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죠. 이렇듯 우리 본래 마음이 부처입니다. 내가 부처인 것이 분명한데 이것을 못 믿는 것이 중생심이지요. 부처의 마음을 쓰면 부처인 거고, 화두로써 내가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는 거예요.

화광동진 화이부동和光同塵 和而不同이란 말이 있어요. 화광동진은 아침햇살이 문 틈 사이로 비치면서 빛과 먼지가 하나처럼 보이는 것을 말하고 화이부동은 조화하되 같이 어울리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중생은 부처이나 부처는 중생일 수 없어요. 이는 섞이지 않는데 섞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연꽃과 진흙처럼 함께 하지만 섞이지 않는 것이예요.

고려 말 나옹 선사께서 이런 말씀은 남겼어요.

염기염멸 위지생사 念起念滅 謂之生死
당생사지제 수진력 제기화두 當生死之際 須盡力 提起話頭
화두순일 기멸즉진 話頭純一 起滅即盡
기멸즉진처 위지적 起滅即盡處 謂之寂
적중무화두 위지무기 寂中無話頭 謂之無記
적중불매화두 위지령 寂中不昧話頭 謂之靈
차공적영지 무괴무잡 此空寂靈知 無壞無雜
여시용절 불일성지 如是用切 不日成之

한 생각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이름하여 생사라 하니
 이러한 생사에 당하여서 반드시 힘을 다하여 화두를 들지어다
 화두가 순일해지면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하나니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다한 곳을 이름하여 고요함이라 한다
 고요한 가운데 화두가 없는 것을 무기라 하고
 고요한 가운데 화두에 어둠이 없으면 이름하여 신령하다 하니
 이러히 고요하면서 신령스럽게 아는 것이 무너짐도 잡되지도 않게 할지니
 이와 같이 간절하게 하면 며칠 안 가서 이루어지리라



또 우리가 물을 마시러가는 것에 비유하면 교학은 길을 안내하고 참선은 직접 물을 마시는 것과 같아요. 듣고 읽고 해서 가는 길을 알지만 물은 움직여서 직접 마셔야 하지. 이처럼 선은 수행활동을 통해 체험하고 중득되는 것이지 설명으로는 불가능해요.

방향을 제대로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원에서 사짐을 배우고 경을 배우는 것이죠. 그 이후에는 화두를 드는 수행자로 돌아와야 합니다. 물론 바로 선원에 올 수 없는 스님도 있어요. 은사스님을 돕는다든지 포교현장으로 들어가든지 다른 학문을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바라보는 방향은 잊으면 안 됩니다. 잊지 않으면, 돌아가고 늦더라도 언젠가는 도착합니다. 모든 물줄기는 바다를 향해 있어요. 웅덩이가 있으면 고여서 기다려 넘어가고, 바위가 있으면 돌아서 바다에 가면 돼요. 느려도 좋으니 쉽 없이 가다보면 바다에 도달하게 됩니다.

선禪에서의 마장이란 무엇입니까?

한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마구니예요. 그러나 이 마구니는 들어오거나 맡거나 관여하지 않으면 자연히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이 사람 많은 명동에 왔는데 말도 안 통하고 길도 모르는 곳에서 의지할 곳이라곤 깃발 하나야. 사람 많은 거리에서 깃발만 보고 가야 하는데 좌우의 가게나 식당

을 불 겨를이 있겠어요? 화두를 드는 사람이 화두를 놓치면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팔만사천 번뇌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 번뇌를 시비할 겨를이 없어요. 화두를 놓쳤구나 생각하고 다시 화두를 들면 마장은 저절로 없어집니다. 전부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일 뿐이지요.

저희 학인들에게 꼭 해주시고 싶은 말씀이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신심명』에 ‘지도무난 유희간택 단막중에 통연명백 至道無難 唯嫌揀擇 但莫憎愛 洞然明白’이란 말이 있어요. ‘지극한 도는 어렵지 않고 단지 분별을 버리면 된다. 좋고 나쁨을 떠나면 통연히 깨달을 것이다’.

불교에 있어서는 장단점을 논하지 않아야 합니다. 장점 속에 단점이 있고 단점 속에 장점이 있어요. 벼농사를 지어 밥을 먹으려면 탈곡해서 쌀만 취하고 낻를 가려내야 하지요? 하지만 벼의 입장에서 낻이 있고 뿌리, 줄기 등이 있어야 쌀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만 취하는데 그것을 간택심이라고 해요. 이러한 양극단의 논리를 초월하는 것이 불교이고 중도입니다.

또한 하심은 모든 수행의 기본입니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받아들이지 못 하는 것은 하심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자기간은 하심을 하는 기간이지 일꾼이 없어서 쓰는 기간이 아니에요. 강원생활도 마찬가지로. 자기를 내려놓지 않고선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배우고 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수행으로써 나의 향기를 채워야 합니다. 향기는 아무리 싸 매어도 밖으로 퍼져 나가는 것처럼 묵묵히 수행하여 자기의 향기를 완성시켜야 합니다.

또 수행자는 의복을 갖추어 입어야 합니다. 불편하지만 의복은 나를 가다듬는 도구가 되어 밖을 다닐 때에도 함부로 행동하지 않게 돼요.

그리고 강원을 졸업한다는 것은 끝이 아니고 또 다른 시작이라는 것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정식 스님은 운동으로 치면 프로이고 여러분들은 세미 프로. 행자는 아마추어 정도 됩니다. 프로는 스스로 관리하고 책임감이 무거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앞으로 처음의 설렘을 잊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가세요. 수행자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은 당당한 모습입니다. 올곧게 스님답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서 있는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세요.

‘승시직입乘時直入’ - 언제 어디서든지 그때를 타고 들어가야 합니다. 선에선 화두이겠지만 다 적용이 돼요. 그 자리에서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시끄러운 곳이든, 조용한 곳이든 늘 법문과 화두를 챙기다 보면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어 터지게 됩니다. 부처님과 조사스님들 여러 큰스님들은 중생을 속이는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열심히 수행하다보면 반드시 본래 부처임을 확인하고 또 확인했으면 이 나의 깨달음을 모든 중생에게 회향하겠다는 큰 마음을 가지고 정진하는 스님이 되길 바랍니다.

영진 스님과 말씀 나누는 중에 작지만 약한 눈발이 내렸습니다. 조금 더 왔으면 하는 마음처럼 스님과의 대화시간은 큰 여유를 남기고 끝이 났습니다. 강원생활 1년이 남은 나에게 늦더라도, 돌아가더라도 가야 하는 길을 뚜렷이 밝혀주는 고마운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결제기간 중임에도 긴 시간을 내주신 백담사 유나스님과 거처를 마련해 주신 관계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부처님 마음

향광 / 대교과



어느 절에 모범생 행자와 말썽꾸러기 행자가 있었다네.

말썽꾸러기 행자는 단 하루도 빠짐없이 말썽을 피우며 도량을 어수선하게 만들기 일쑤였지.

그러나 노스님은 단 한 번도 말썽꾸러기 행자에게 나무라거나 역정을 내신 적이 없었어.

모범생 행자는 이런 노스님이 늘 답답하고 불만스러워 말썽드리려 하면 노스님께서는

“이런 못난 놈 같으니라고! 듣기 싫어 가.” 라고 하실 뿐이었다네.

어느 날 말썽꾸러기 행자는 또다시 사고를 치고 말았네. 모범생 행자는 더는 참지 못 하고 노스님께 찾아가 말썽꾸러기 행자를 떠나 보내주시기를 간청했지.

노스님은 두 행자를 부르셨다네. 부르신 그곳엔 밀 빠진 독 2개가 있었지.

“자자, 내 얘기 잘 들어. 이 깨진 독에다 물을 가득 채워야 해. 깨진 구멍에다 손을 대거나 뿔로 틀어막으면 안 돼. 알았지들? 어여들 해봐.”

두 행자는 어안이 병병했다지.

이윽고 두 행자는 어떻게든 항아리를 채우기 위해 미련하게 물을 길어와 채우기 시작했다네. 물이 채워질 턱이 있겠는가. 그러던 중 모범생 행자는 좋은 생각이 떠올랐는지 깨진 독 안으로 들어갔다네.

그리고 합장하고 노스님께 말하였지.

“마음이 물이오. 몸 또한 마음과 다르지 않으니 깨진 독 안에 채운 소승의 몸과 마음은 깨끗한 물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 모습을 본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네.

“난 물을 채우라고 했지 사람을 채우라고 하지 않았느니라. 그건 답이 아니야.”

그러자 말쑥꾸러기 행자가 갑자기 깨진 독을 들고 어디론가 달려가기 시작했다네.

도랑 옆 작은 연못으로 말이야. 말쑥꾸러기 행자는 연못에 깨진 독을 던지고 자신의 몸도 던졌다네. 그리고 깨진 독을 깊이깊이 물 속으로 밀어넣었어.

이 모습을 지켜본 노스님께서 말씀하셨다네.

“허허허! 이 독에 맑은 물이 철철 넘치는구나! 허허허!”

날이 저물고 말쑥꾸러기 행자가 노스님께 찾아왔네. 행자는 노스님께 여쭙었지.

“스님! 저를 이렇게 감싸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누굴 감싸줘.”

“아니 스님께서 그래도 착하게 살라든지 뭐 남들 괴롭히지 말라든지, 아무튼 바라는 게 있으시니 그렇게 감싸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궁금하나? 그럼, 너 아까 밀 빠진 독에 물을 퍼부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채웠어?”

“그건 그냥... 그냥 항아리를 물 속에다 던졌습시다.”

그러자 노스님이 말씀하셨네.

“나도 밀 빠진 너희들을 그냥 내 마음 속에 던졌을 뿐이야...”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하고자 하는가?

배움의 시작과 끝은 그 마음자리 하나일 뿐이라네.

그 마음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우리 함께 밀 빠진 독마저 품을 수 있는 저 연못의 물처럼 되어보지 않겠는가.

우리 함께 자비로써 중생을 품을 수 있는 부처의 마음을 이루어보지 않겠는가. ☸



대승불교의 꽃, 민들레꽃이 피었습니다 행복공동체 〈정토마을〉 2

지안 / 제55회 졸업생

도시로 부는 바람을 탄 민들레 씨앗은 모다 시멘트로 포장한 딱딱한 땅을 만나 싹트지 못 하고 죽어버렸으련만 단 하나의 민들레 씨앗은 웅색하나마 흙을 만난 것입니다. 흙이랄 것도 없는 한 줌의 먼지에 허겁지겁 뿌리 내리고 눈물겹도록 노랗게 핀 민들레꽃을 보자 나는 갑자기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살고 싶지 않았던 게 큰 잘못같이 생각되었습니다.

- 박완서의 「옥상의 민들레꽃」 중에서

민들레꽃은 척박한 도시의 환경에서도 피어나기 때문에 생명의 상징으로 인식됩니다. 벌어진 보도블록 사이를 비집고도 꽃을 피우는 괴력을 보여줍니다. 무심코 그냥 밟는 정도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한겨울 풀들이 말라죽은 들판에 홀로 꽃기를 보이며 낡작 없드려 있는 녀석들도 추위를 이겨낸 민들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땅에 바짝 붙어 펼쳐진 채 어떤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생명력을 펴트려나가는 민들레의 모습을 가만히 보노라면 나도 모르게 솟아나는 용기와 희망의 기운이 마음을 울립니다.



호스피스 등의 의료봉사와 교육 봉사 이어 정도마을의 3대 사업 가운데 마지막 한 가지는 바로 '국경 없는 민들레'라고 이름붙인 국제의료봉사활동입니다. 정도마을 국경 없는 민들레는 수많은 민들레 흩씨들을 만들어 차별 없는 평등심으로 현대문명의 불모지이며 현대의학이 닿지 않는 해외 산간오지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 의료봉사를 비롯한 여러 가지 구호활동을 지난 2015년도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제의료봉사의 대상지역은 인도, 네팔, 미얀마, 스리랑카, 라오스, 몽골,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등 주로 동남아시아의 오지마을입니다.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형편이 더 어렵고 도움의 손길이 덜 미치는 지역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2017년에 미얀마와 북인도 보드카야, 2018년에는 남인도 대봉 로셀링 사원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올 2019년도 7월에는 라다크, 11월에는 스리랑카로 봉사활동이 예정되어 있어 준비가 한창입니다.

미얀마, 인도 등 국제의료봉사 활동

의료봉사를 떠나기 위해서는 몇 달 전부터 다양한 사전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대상지역을 선정한 후 답사팀을 꾸려 미리 현지답사를 시작합니다. 실제 현장을 찾아 지역의 특성과 주민들의 생활모습을 여러 가지로 관찰하여 특별히 무엇이 더 필요한지, 어떤 질병이 많은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고 검토합니다.

그런 다음 돌아와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필요한 물품과 약품을 준비하고 특성에 맞춘 의료진과 봉사팀을 조직합니다. 수천 명의 대규모 치료인원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선정하고 구입하는 일부더 그것을 운반해서 현지에서 나누어주는 일은 사실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작업입니다.

최종적으로 비타민, 종합감기약, 안약, 관절염 치료제 등등 30여 종류의 의약품과 20여 종의 의료기기가 준비되면, 그 다음으로 이 엄청난 약들을 나누어 담아 가져가는 일이 대대적인 미션이 됩니다. 봉사단원들 각자의 집에 10kg 내지 15kg씩을 나누어 담아 무사히 통관하기까지 가슴을 졸이는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이제 본격적인 구호활동이 시작됩니다.

현지에서의 의료봉사는 3일간 진행됩니다. 소문을 듣고 찾아오는 많은 인파들을 맞이하고 질서 정연하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일도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구충제를 복용하게 하고 충치 예방을 위한 불소 도포를 한 뒤, 통역의 안내로 건강 문진표를 작성하면 진료실 별로 번호표를 주어 기다리도록 합니다. 길게 늘어선 줄에도 짜증내지 않고 마치 소풍을 나온 것처럼 노래를 부르고 박수도 치며 함께 모여 앉은 순박한 모습들에 봉사자들은 더욱 큰 보람을 느낍니다.

선생님, 부모님과 함께 온 어린이들에게 페이스페인팅을 해 주고 머리를 손질해 주는 미용봉사와 빵, 비스킷, 과일 등 먹을거리도 대접하여 봉사단의 정성 어린 마음을 최대한 전달합니다. 거리가 너무 멀어 오기 힘든 인근지역 주민들을 위해 교통편도 제공하여 가능한 많은 이들이 치료를 받아 갈 수 있도록 힘씁니다.

현지인들이 주로 호소하는 증상은 위장장애와 관절염, 각종 피부질환 등인데, 준비해 간 기구들로 내시경 검사, 초음파 검사 등을 시행합니다. 현지에 병원이 있으면 이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최대한 빌려서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한 현지의 의료진을 모집해 비용을 지불하고 진료를 하도록 하기도 합니다. 언어 소

통의 문제 때문에 현지인 의사가 한국 의료진을 도와 협진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의외로 호응도가 높은 진료 분야는 한방치료인데, 침술로 어깨, 무릎, 허리 등의 통증이나 부기를 즉각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에 놀라워하였습니다.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여성 환자들 중에는 본인의 임신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있었고, 복통을 호소하는 여성들 중에는 출산 후 깨끗이 정리되지 못한 태반이 몸속에서 썩고 있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어 수술을 위해 병원 안내를 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오지마을 진료소 건립과 불교사원 지원

국경 없는 민들레는 의료봉사 외에도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을 함께 제공합니다. 일시적인 의료봉사보다 더 근본적인 의료 시설 구축을 위해 우리의 보건소와 비슷한 개념의 진료소를 산간오지 지역에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곳은 네팔과 스리랑카인데, 병원이 없는 지역에 최대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장소를 정하여 건물을 짓고 의사와 간호사를 고용하고 약품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의료봉사가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손 씻기와 양치 등 위생교육과 영양, 보건, 질병예방 교육도 실시합니다. 인건비와 운영비 일체를 지원하여 질병의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고통받고 있는 소외지역의 사람들에게 최소한의 의료적 안전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경 없는 민들레의 원력입니다.

올해 방문을 계획하고 있는 라다크 지역은 일 년의 절반 이상이 추운 겨울인 점을 고려하여 따뜻한 옷을 많이 가져가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봉사단이 활동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은 대부분이 유서 깊은 불교국가들이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수행정진하시는 스님들과 사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에 국경 없는 민들레는 봉사지역 인근의 불교사원을 돕는 것을



또 하나의 원력으로 세워 여러 가지 지원을 병행합니다. 남인도 로셀링 사원에 갔을 때는 깨끗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물 정수 탱크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사미, 사미니 등 어린 학인스님들이 공부하는 곳은 학비와 생활비 및 필요한 물품들을 후원하여 훌륭한 승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보탭니다.

국경 없는 민들레의 이 모든 다양한 활동들은 뜻있는 많은 분들의 자발적인 후원으로 가능해집니다. 우리에게겐 적은 액수의 돈일지라도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에게는 아주 큰 가치를 발휘합니다. 봉사단 또한 자발적인 참여 신청으로 조직되는데, 자신의 귀한 시간과 비용을 기꺼이 나누어 함께 해주시는 봉사자 한 사람 한 사람의 모습 속에서 희망의 빛을 발견합니다.

사실 비행기와 낡은 버스로 꼬박 하루를 이동해야 하는 머나먼 나라로 떠난다는 것, 먹을 것이나 잠잘 곳 등 무엇 하나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은 덥고 습하고 위험한 오지의 환경을 견뎌야 하는 상황들은 참으로 힘들고 고단한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자들은 한결같이 도울 수 있음에 감사하고 더 많은 것을 배워온다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별 것 아닌 작은 힘 하나 보태는 일이 누군가에겐 인생을 바꾸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체험하며, 감사와 보람을 느끼는 동시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 알던 이기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게 되고, 삶에서 진정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됩니다. 가슴으로부터 자비심과 지혜가 활짝 열리는 진정한 불교의 진리를 몸소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정도마을의 국경 없는 민들레를 이끄는 수장이신 이사장 능행 스님은 왜 그렇게 먼 곳까지 가서 봉사를 하는지는 질문에 '마땅한 일' 이기 때문이라고 답합니다. 고통받는 중생들의 삶이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 눈 감고 외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중생이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부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있어야 하고 차별 없이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차별 없는 도움', 내 나라와 먼 나라를 가리지 않고, 나와 내가 둘이 아닌 '불이不二' 사상은 국경 없는 민들레가 지향하는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입니다.

민들레 흙씨가 바람을 따라 퍼져나가는 곳은 어디든 가리지 않습니다. 날려만 간다면 땅 끝까지도 가서 내려앉아 꽃을 피웁니다. 어떤 경계도 없이 산간오지에도 빈민촌에도 나라와 민족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이 있는 곳에는 어디든지 날아가 자비의 꽃을 피우는 봉사단을 민들레라 부르는 이유입니다.

진흙탕 속에서도 물들지 않고 깨끗이 피어나는 연꽃은 우리들의 본래 청정한 불성을 표현하는 아름다운 상징입니다. 하지만 무수한 흙씨를 널리널리 퍼뜨려 온 누리에 무성한 황금빛 꽃을 피워내는 민들레는 진정한 대승불교의 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울봄 옹기종기 모여 있는 민들레의 정겨운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도 그대처럼 걸림 없이 날아가 중생 곁에 꽃피우는 흙씨가 되겠노라 서원을 세워보시면 좋겠습니다. 🌻

어느 '처사 교수'의 녀두리

신규탁 / 연세대 철학과 교수



학생들을 가르치고 연구하는 직업이다 보니, 더러 학생들에게 질문을 받는 내용이 있지요. “교수님은 언제부터 철학 전공할 생각을 했어요?”, “교수님은 무슨 계기로 학문의 길을 가시게 되셨어요?” 이렇게 질문하는 학생들 대부분의 속내에는 자신도 철학을 전공해서 이 길을 가고픈 심정이 있어 보입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아가 내가 택한 삶이, 누군가에게 선행의 대상이 된다는 것은 그 자체로 고맙고도 가슴 뿌듯한 일입니다.

이런 질문을 받고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내가 언제부터 철학교수로 내 직업을 삼으려했지? 저의 대답은 이랬습니다. 대학 다니다 보니 그렇게 되었다고. 세월 속에서 4학년 올라가면서 막연하게 석사과정에 입학하게 되었지요. 당시는 이 길이 내 인생이 되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어요. 그런데 박사과정 입학을 결심하던 단계에서는 직업으로 이 길을 가겠다고 분명해졌습니다. 즉, 살아가면서 차츰 그렇게 되었다는 거지요.

결국 처음부터 결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닌 것이었지요. 여기에 생각이 미치자, 학부과정 학생 또는 석사과정 학생의 눈높이에서 철학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들 눈높이에 맞추어 강의하게 되었고, 철학적 문제들을 그들 입장에서 재구성해보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스님들도 이런 질문을 받았거나 또는 앞으로 수없이 받을 것입니다. “언제부터 출가하실 생각을 내셨어요?”, “왜 스님이 되셨어요?” 운문승가대학 사미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을 받으시면 무어라 하시겠습니까? 제

가 불자들에게 말합니다. 전생에 인연이 있었다느니, 어릴 때부터의 꿈이었다느니, 그렇게 말하시렵니까? 그런 분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살다보니 저마다 그런 길을 가는 것이 아닌가요? 살아가는 과정에서 그때 그때 계기 되는 일들이 있어서, 지금의 결과가 있는 거지요.

‘그때 그때의 계기’. 이런 작은 사건들이 모여서, 작은 물 알갱이들이 모여 폭포수의 물줄기를 이루듯이,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다발지어 가는 게 아닌가요? 인연 있는 절을 찾아 ‘행자’ 생활해보다가, 할 만하면 사미니계 받고 예비승려의 길로 발을 디디는 거지요. 4년간 승가대학에서 기본적인 소양을 갖추면서, 이 길이 내 길이다 싶으면 정식 승려로 입문하는 거지요. 이 4년간은 자신이 살아온 뒤도 돌아보고, 또 자신이 살아갈 앞도 내다보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겠지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제 개인 생각인데요, 승가대학 4년 졸업하면서 동시에 정식 스님이 되는 비구니계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럴 분들은 그렇게 해도 되겠지만. 내가 이 길을 정말로 가야 하는지 좀더 생각해보면서 사미니 생활을 몇 년간 더 해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경덕전등록』이나 역대의 『고승전』들을 보면, 그런 사례들이 적지 않아요. 비구계를 받고 법사와의 연연 맺기에는 더 많은 수행과 긴 세월의 사연들을 겪습니다.

저의 경우는 유학을 떠나 박사과정을 밟으면서 치열해졌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앞으로만 갔지요. 요즘은 더 그렇지만 그 때에도 교수 자리는 매우 적었어요. 불보살께서 제게 밥이야 안 굶기겠지 굳게 믿고 고생인 줄도 모르고 그 길을 지나왔어요. 지금은 철학 책과 불교 책만 보고 그것을 연구하고 강의하는데도, 밥이 나오고 돈이 생기네요. 참으로 고맙고도 은혜롭지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향후 출가를 염두에 둔 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라서 그렇습니다. 남 보기에 아무리 어려운 일도, 사실 당사자에게는 그냥 하다보니 되는 것이라는 거지요. 혹시 출가를 마음에 두고 길을 묻는 이 있거든, 한 번 이 문에 들면 돌아올 수 없는 길은 아니라고, 가다가 다시 되돌아올 수도 있는 길이라고, 파계가 부끄러운 일이지 ‘환계還戒’는 언제나 열려 있는 길이라고 말해 주세요. ‘환계’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렇게 말해주세요. 사문이 되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을 지키겠다고 약속하는 것이 ‘수계授戒’이고, 부득이하게 그것을 지키지 못 할 때는 다시 그 약속을 대중들 앞에 고하고 가사를 반환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남자들 같으면 군 입대 같은 경우가 있겠지요. 계를 반납하고 입대하여 총 들고 전쟁 연습하다가, 제대를 하고 다시 계를 받는 것이지요.

아무튼 승가대학 예비 스님들. 대학 문을 떠나기 전에 긴 출가의 삶을 준비도 하시고, 지나

온 세속의 삶도 뒤돌아보는 시간 많이 가지세요. 대학 문을 나오는 순간, 그럴 여유가 쉽게 오지 않아요. 대학 시절에 준비해야 할 일도 많이 있지요. 재가 불자의 입장에서 스님들이 이런 소양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 하나 말씀 드려 볼까요?

“스님이 되었으면 탁자 밥은 내려 먹을 줄 알아야지.”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탁자 밥’이란 불단에 불공으로 올라온 마지를 지칭합니다. <상주권공> 정도는 할 줄 알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줄잡아서 <상단불공>과 <중단불공>, 그리고 <시식>은 여법하게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일자 목탁으로 고저장단 다 무시하고 쓸어젖는 그런 거 말구요. ‘풍송성’, ‘거불성’, ‘유치성’, ‘청사성’, ‘가영성’, ‘고아계성’, ‘송자성’, ‘참회성’. 이런 소리 정도는 짓소리로도 배워서 입에 달달 붙이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여기에다 ‘창화성’이나, ‘격구성’이나, ‘선후창’이나도 겸해서 알아두셔야 합니다. ‘격구성’은 주거나 받거나 하는 거지요.

‘처사 교수’가 별소리다 한다고 하시겠네요. ‘풍송성’은 ‘송주성’이라고도 하는데, 아침이나 저녁으로 송주 때에 사용하는 소리지요. ‘고아계성’은 “고아일심귀명정패故我一心歸命頂禮”를 저술 때 쓰는 소리를 말합니다. 나머지는 그 이름대로이니 글자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 음악에 소질이 없어 이도저도 안 되면, ‘송주성’ 하나만이라도 확실하게 익혀주세요.



저는 매주 일요일에는 정기 법회에 출석합니다. 정말, 저도 살다보니 일용의식 정도는 배워 익혔고 전문의식도 ‘듣는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염불 안 되는 스님이 집전하면 한 마디로 기도 집중이 안 됩니다. 소위 ‘천수’ 치고 불공을 올리는데, 들어주기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어요. 사실 신도들은 불공 내용도 소리의 원형도 잘 몰라요. 그렇지만 그들도 ‘천수’의 박자는 입에 배었어요. ‘기도스님’이 새로 오면 다들 힘들어 해요. 목탁의 박자가 안 맞는대요. 그러다가 몇 개월 겨우 맞추면 또 탄 분이 오신대요. 죽겠대요.

염불은 호흡입니다. 호흡이 맞아야 삼매에 들 수 있지요. 모든 대중이 ‘창화성’으로 할 때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법주가 목탁으로 인도를 해야 합니다. 목탁 소리가 끊어졌어도 염불은 계속 흘러가고 그러한 동안 호흡도 같이 가는 거지요. 태징을 찍거나 누를 줄 몰라도 천수 목탁과 송주성만은 제대로 해야겠어요. 이거 못 하면 ‘민폐’입니다.

신도 입장에서 스님들께 바라는 것, 최소한이 염불입니다. '천수' 좀 잘 쳐주세요. 세상살이 힘들어 절을 찾아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마음을 가다듬어 집중하는데, 엇박이 나고, LP 판 튀듯 하고, 높은 소리 낮은 소리가 뒤섞이면, 참으로 이 중생이 불쌍해집니다.

내친 김에 재가 불자 입장에서 한 가지 주문 더 해보겠습니다. 불교는 종교입니다. 절은 문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공양의 공간이고, 참회의 공간이고, 발원의 공간이고, 수행의 공간입니다. 진귀한 다구와 외국산 차 마시는 곳이 아닙니다. 비싼 진공판 오디오 듣는 곳이 아닙니다. 영혼 없는 문화해설 듣는 공간이 아닙니다. 믿음 뺀 사상을 논하는 철학 강의실도, 한문 배우고 범어 배우는 학원도 아닙니다. 음식 먹고 그것 가르치는 요리강습소가 아닙니다. 사교의 공간은 더욱 아니고요.

세상살이에 찌들고 지친 저들을 풀어주세요. 저들이 혹시 재산이 좀 있고 출세 좀 했다 하여 그 힘을 쥔 집안까지 끌고 들어와 흔들어대더라도,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청빈함이 주는 당당함과, 안빈낙도하는 수행자의 의젓함을 보여주세요. 부처님께 엎드려 하염없이 자신을 낮추는 제자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부처님 살아 눈앞에 계시듯 말씀 따르는 믿음의 자손다운 모습 보여주세요. 운문사는 명성 큰스님이 주석하는 도량이니 이 세상 최고의 교육도량입니다. 그곳에서의 일들을 하나하나 마음에 새겨두시면, 평생 귀한 자산이 되실 겁니다. 이 길은 감보아서도 안 되지만 현애심(懸崖心)¹⁾을 내어서도 안 됩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인지 말씀 안 드려도 하시겠지요. 🍀



신규탁님은 대학시절 월운 스님의 인도로 불교학에 입문하여 동경대학대학원에서 화엄학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고 연세대학교 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최근에는 <월운당 가리사 : 화엄종주 월운당 해동 강백 문집>을 편집 간행했다. 원체 이름 특이하여 각종 검색창에 '신규탁'을 치면 그의 살림살이가 올라온다.
ananda@yonsei.ac.kr

1) 어렵다고 지레 꺼려하고 겁내는 마음



처음처럼

치문반

처음 예비 소집일에 운문사 영상을 보았습니다. 처진 소나무 정신과 다음 세대를 위해 나무를 심으시는 회주스님의 마음 그리고 항상 상대를 바라볼 때는 지난 과거에 머물지 말고 변화하는 오늘과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가지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4년의 과정을 잘 회향하여 졸업하겠습니다. - 보현

처음 행자시절 어른스님께서 늘 강조하신 말씀이 떠오릅니다.

“항상 원력을 세워야 한다.

첫째는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좋은 도량에서 둘째는 같이 수행에 나아갈 수 있는 도반과 셋째는 자기 수행에 있어 나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선지식을 만나게 하여지이다.”

매일 이와 같은 원력을 간절히 빌면 스님으로서 올바른 수행자가 될 수 있다 하셨습니다.

운문사에서 하루하루 지내면서 보니, 아름답고 수행을 바르게 할 수 있는 도량에서, 치문반이라는 도반스님들과 저희를 가르쳐주시는 교수스님과 습의를 해주시는 상반스님들이 바로 선지식입니다.



운문사의 하루가 힘들긴 하지만 신심 나고, 대중과 함께 수행하는 이 삶이 이런 인연을 만나게 해주니 감사하며, 앞으로도 이 마음 잃지 않고 처음처럼 부지런히 수행해 나가는 운수납자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현밀

- 운문사에서 대중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고민하다 확신하지 못한 채로 잔뜩 겁을 먹고 오게 되었습니다. 막상 와 보니 상반스님들이 하나하나 가르쳐 주시고 도반스님들도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힘들지 않지는 않지만 덜 힘듭니다. 잠깐씩 쳐다보는 하늘이, 삭발한 머리에 비추는 따뜻한 햇살이 좋고, 5분 전 대기 시간 지키려고 서두르며 떨 때면 웃음이 절로 나옵니다. 도반스님들과 함께 간식 먹는 때가 좋고 후원에서 남은 과일도 열심히 가지고 옵니다. 저는 지금 행복합니다. ^^
- 마노

- 처음 보는 운문사의 봄은 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겨울을 나고 맞이하는 봄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은 필수적이라는 것! 그 꽃 한 송이는 사실 치열한 추위를 이겨낸 후에야 따뜻한 봄벌을 볼 수 있다는 것! 동물이 겨울잠을 자듯 미래를 대비할 자양분을 비축하는 기간은 필수적이라는 것! 바로 아픔을 이겨낸 성장만이 가장 가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운문사 도량 내에 봄은 찾아왔지만 아직 저는 치문반의 한겨울 속인 것 같습니다.
규칙을 배우기에 급급하고, 외워야 할 것은 계속 늘어가며 연신 스스로의 부족함만이 드러나는 것 같아 마음의 겨울을 더 나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으시는 상반스님들, 함께 나아가는 도반스님들이 있기에 그리 춥지만은 않습니다. 또한 절차탁마하여 제련되고 정제하여 맞이할 봄을 이 운문사라는 도량에서 준비할 수 있어 감사합니다.
사실 “자신이 서 있는 곳이 꽃 가득한 화장세계” 즉 만연한 봄이라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스스로의 부족함을 알고 정진하는 수행자의 모습은 그 어떠한 꽃보다 아름답기에 이 자리에서 더 노력하는 자신이 되고자 합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 문광

- “몇 번이고 반복해서 말하지만 참을 ‘인’ 자 하나만큼 좋은 것이 없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잘 참을 줄 알아야 해. 참을 ‘인’ 자를 꼭 기억해라. 가기 전에 손 한 번 잡아보고 가자.”
운문사로 출발하기 전, 한평생 수행의 역사가 고스란히 담긴 노스님 말씀이 귀에 생생하다.
운문사에서 열흘 살고 나니 나를 긴장시키고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살자고 다짐하게 해주는 문장이 생겼다. 스님들께 격정 들고 나면 치문반 스물두 명이 다함께 “잘못했습니다.”를 외치게 된다. 어느 한 사람이 잘못해도 그것은 치문반 모두의 잘못이다. 도반을 이끌어 주지 못한 내 잘못을 참회하면서 “잘못했습니다!”를 운문사에서 처음 외치던 날, 나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했다. - 성안

은사스님의 발자국을 따라서

지엄 / 사교과



출가하고서 많이 듣는 단어 중 하나가 '수행자' 라는 말입니다.

'출가 수행자답게 이렇게 해야 한다.'

'수행자라면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

'수행자는……. 수행자란……. 수행자이기 때문에……. 수행자, 수행자…….'

전부터 알고 있던 이 '수행자' 라는 단어의 무게는 처음부터 저에게 무겁고 부담스럽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나는 수행을 하고 있는가? 수행을 하려고 하는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기도 했습니다. 가장 최근 저는 수행자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고, 비로소 그 단어의 무게로부터 편해질 수 있었습니다.

저에게 '출가한 사미니가 수행자가 아니라니 무슨 해괴한 소리냐?' 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출가하였으나 수행하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먼저 저의 출가 동기부터 말씀드리자면, 부끄럽지만 운문사의 다른 대중처럼 깨달음을 얻고자 하거나, 윤회를 벗어나고 싶거나, 청정수행자의 모습을 갖고자 출가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분의 뒤를 쫓아 곁에서 모시며 살고 싶어서 출가했습니다. 그분 곁에서 그분이 풀을 뽑으시는 자리에, 공양을 하시는 자리에, 포행을 하시는 길에, 사경을 하시는 같은 장소에……. 시끄러운 세상 밖의 시시비비를 따지는 과거를 내려놓고, 그저 곁에서 그분의 향기에 정화되고 싶었습니다. 은사스님의 뒤에서 그분 발자국에 내 신발을 포개어 얹으며, 그렇게 평생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벅찬 기쁨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출가 이후 꼭 저에게 출가수행자라고 하는 말이 부담스럽고, 양심상 수행을 위해 출가한 것이 아니라서 ‘저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담임교수스님께서 은사스님 뒤를 쫓고자 하는 것이 바로 수행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때 수행하려고 출가한 것이 아니라는 죄책감은 사라지고 ‘그래 수행자라는 무거운 부담을 억지로 지려고 하지 말자. 이대로 은사스님께 수순하며 곁에서 살아가리라.’ 하고 생각했습니다.

저희 은사스님께서서는 출가 후 지금까지 쭉 30년 이상 노스님을 정성을 다해 모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스님 곁에서 함께 하실 거라고 하십니다. 노스님을 향한 은사스님의 지극한 믿음과 공경의 마음은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과 다름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부처님 다음은 노스님이셨습니다. 『장아함경』에는 스승과 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제자가 스승을 공경해 받드는 데는 다섯 가지 일이 있어야 한다.

첫째 필요한 물건을 공급함이요

둘째 존경해 봉사함이요

셋째 존중해 기대함이요

넷째 가르침을 따라서 어기지 않음이요

다섯째 스승으로부터 들은 가르침을 잘 수지해 잊지 않음이다.

『장아함경』

스승님께 필요한 음식을 준비하며 기뻐하고, 스승님을 존경하며 시봉하고, 스승님을 존중하며 의지하고, 그분의 가르침을 믿고 어기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잘 명심해 살아야 한다고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번뇌가 영킨 머리를 깎아주시고 제자로 받아주신 은사스님의 은혜를 평생 공경하여야 참된 부처님의 제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풍족하여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땀감을 힘들게 해오거나 스승님께서 목욕하실 물을 미리 데워 준비하는 수고로움을 겪을 일이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은사스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보다 진심을 다해 정성으로 공경하는 그 한 가지가 현재 우리 학인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부처님 제자로서의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제 저는 당당하고 떳떳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는 수행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뒤를 쫓아 걸어가신 무수한 선지식들처럼 그저 노스님 뒤를 따라 걸으시는 은사스님의 제자 지엄입니다. ❷



운문사 오는 길

범음 / 사집과



출가하는 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차를 운전해 주시는 보살님 그리고 저와 스님은 길 옆 오두막에 잠시 내려 싸 온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곧 스님과 헤어질 일을 생각하니 밥이 잘 안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난생 처음 운문사를 왔습니다.

다시 운문사로 돌아온 것은 다음 해 계를 받고 강원에 입학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이라 산길은 이미 눈 솜으로 가득한데 그 눈길을 뚫고 보살님들이 두부를 신고 우리 절로 오셨습니다. 스님들께 공양할 것이니 좋은 콩이어야 한다며 이웃 마을 여기저기를 수소문한 콩으로 만들어 오신 것이었습니다.

“스님, 몸 건강하게 공부 열심히 하고 오세요.” 머리는 상기가 올라 울퉁불퉁하고 승복은 허수아비에 걸린 것같이 경충한데 그런 어설픈 모습으로 스님이라 불리며 지극한 공양을 받으니 부끄러운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장 그런 서투른 몸과 마음을 어찌지는 못 한 채 지극한 공양만 받아들고 다시 운문사로 돌아왔습니다.

세번째 운문사로 돌아오는 길은 치문의 짧은 봄방학 휴가를 마치고 서울에서 올 때였습니다. 언제 이 서울에 살았나 싶게 저는 어느새 낯선 이방인이 되어 에스컬레이터 하나 오르는 것도 더듬거리고 있었습니다. 긴 두루마기는 얇으나 서나 불편했고 걸망은 등에서 비틀비틀 무거웠습니다. 그러던 것이 신기하게도 운문사 들어가는 소나무 길에 이르니 괜찮아졌습니다. 걸망은 무게가 적절해졌고 두루마기는 걸음에 맞게 펼쳐졌습니다. 있어야 할 곳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는 확인과 회복의 마음이 생겼던 것입니다.

다시 계절은 흘러 가을 개강 날이 되었습니다. 아침 일찍 스님이 어디를 가셨나 했더니 그 아픈 다리로 산언덕 머위와 취잎을 따오셨습니다. 절에는 도시락통 할 만한 작고 가벼운 통은 없고 또 범용 스님은 비닐 쓰는 거 격정하는 사람이니 취잎에다 주먹밥을 싸려고 한다 하십니다.

“스님, 오늘이 무슨 요일이예요?” “오늘? 오늘은 화요일이지.” “에에? 벌써 화요일이라고요? 안 돼요~~!! 그러면 개학이 얼마 안 남은 거잖아요~~!” 배개에 코를 박으며 한숨에 울상을 하니 스님은 그저 허허 웃으셨습니다. 하루는 열 살 남짓한 아이가 할머니 따라 절에 왔는데 스님이 “내일이 개학이구나.” 하시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생일 용돈 받고 싱글거리던 아이는 갑자기 고개를 푹 숙이고는 한숨으로 “네.” 하고 대답했습니다. 스님은 허허 웃으시는데 저는 동병상련도 이런 동병상련은 없다 싶었습니다.

봄철 즈음인가 한 도반 스님이 저에게 스님은 대중에서 출가하고 강원도 대중이 많은 곳으로 왔으니 대중 생활이 잘 맞는가 보다며 부러워하듯 말했습니다. 저는 한소꿈 웃고는 대답했습니다. “스님, 대중생활이 안 맞으니까 이렇게 사는 거예요. 대중에서 나오는 어려움과 결핍은 어디 가서 비싼 학비를 내고도 배울 수 없는 거니까요.”

사실 저는 강원도 올 때만 해도 여기서 글을 배우고 싶어서 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미니계 갈마 때 갈마사 스님께서 강원에 가서는 먼저 경전을 보고 그리고 선방에 가고 싶은 거냐고 물으셨을 때 저는 경전보다는 대중생활에서 나오는 제 마음을 보고 싶어 가는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잠재되어 있는 어려운 마음들은, 인락하고 많은 것이 구축된 환경에서는 보기 어렵다는 것을 어느 날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인락한 집, 좋아하는 공부와 음악, 지식에 대한 사랑이 지극한 부모님 그리고 선한 형제, 따뜻한 친구들을 뒤로 하고 출가를 했습니다. 마음공부를 하기에는 대중보다 더 좋은 학교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더운 여름 한 철 지내고 나니 그 학교가 가기 싫어졌던 겁니다. 어떤 경계에서부터인가 학교 온 처음의 이유를 잊으며 지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스님이 머위앞으로 주먹밥을 감싸시면 저는 칫살을 하나씩 건네 드렸습니다. 눈이 환해지는 그 어린 칫살 색깔은 좋은 마음도 싫은 마음도 물들지 않은 그 무엇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무엇을 잊고 지냈는지 확인할 수 있었고, 내 마음도 괜찮아졌습니다. 다시 돌아갈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스님은 체하지 않게 천천히 푹푹 씹어서 먹으라고 당부하시며 찻물과 함께 그림 같은 주먹밥을 걸망에 넣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괜찮아진 마음으로 그렇게 다시 운문사로 돌아왔습니다.

불이문을 넘어 오는데 “범옹 스님.” 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상반스님이었습니다. “얼굴이 흰해져서 왔네요. 잘 지내다 왔나 봐요. 보기 좋아요. 근데 며칠 지나면 다시 또 새까매질 거죠?” 하고 하하 웃으셨습니다. 머리를 꺾적이며 저도 같이 아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문득 언제쯤 이쪽과 저쪽에서 하얗고 까매지는 이 한 선이 희미해질까? 한 생각 올라왔습니다. 정말 급한 일 있어 머리 깎고 출가했는데 아직도 까맣고 하얘지는 경계에서 머뭇머뭇하고 있으니 갈 길이 멀다 싶었습니다. 운문사 돌아오는 길들이 아직 열 손가락 넘게 남았으니 그 안에 이 경계를 희미하게나마 녹이게 될까요? 또 그런 경계가 사라진 운문사 돌아오는 길은 어떤 길일지도 궁금합니다.

운문사 돌아오는 길들이 이 한 존재가 선하고 청정한 존재로 거듭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존재하는 동안 한 허공도 어지럽히지 않으며 사는 길로 인도해 주는 길이기 때문에……. 🍃

깨달음의 여행길에서 만난 운문사

형주 / 사집과

문제를 바라보는 존재의 삶의 방식과 성격은 삶의 질을 변화시킵니다. 또한 존재에 대한 바른 이해는 성숙된 삶으로 향하는 치유의 시작입니다. 지난 치문시절은 치유를 통한 자기변혁을 좌우하는 것은 이론적 지식이 아닌, 실제적 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치문이란 ‘削髮染衣曰緇요, 入山修道曰門’이라 하여 ‘입산해서 삭발하고, 먹물 옷을 입은 수행하는 스님들의 문중’이라는 뜻이며, 치문의 대지는 일부정 漏淨情 계사업 誠邪業으로 들뜬 생각을 막고, 삐뚤어진 입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지난 치문생활의 경험을 바탕으로 수행자의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운문사의 치문생활은 무상, 고, 무아를 속성과정으로서 체험한 ‘삼범인의 체험현장’ 그 자체였습니다. 매 파트와 철마다 바뀌는 소임들은 고정불변의 내가 없다는 무아를 체험하게 했으며, 다양한 대중운력, 인수인계, 멘트 그리고 걱정사항 등은 일체개교의 삶을 온몸으로 느끼게 했습니다. 또한 함께 웃고, 싸우고, 배고픔 앞에서는 아수라장으로, 아픈 도반이 발생하면 같이 아파하고, 치유하는 자비의 공간으로 변신하는 변화무쌍한 지대방의 생활은 영원한 적도 영원한 아군도 없다는 사실과 계절마다 달라지는 운문사의 멋진 풍경은 모든 시름을 잊게 하는 마력으로 무상한 삶을 알려주었습니다.

치문 봄철 큰 부전스님이 들려 준, 상반스님과 어른스님께서 하시는 모든 걱정은 ‘부처가 되지 못 할까 염려하는 마음’이라는 이야기는 아직도 긴 여운으로 남습니다. 모든 수행력은 삶으로 검증되어집니다. 그런데 저를 돌아보면 ‘부처가 되길 거부하는 마라의 제자인가?’라는 의심을 들게도 합니다. 그러한 이유 중 하나는 불교는 이고득락으로 행복한 삶을 추구하는데 모순되게도 저는 강원생활을 하면서 ‘나는 왜 행복하지 않은가? 나는 과연 수행자인가?’라는 물음을 스스로에게 자주 하였고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로든지 누구나 고통을 경험하기 마련입니다. 스스로 만든 고통에서 벗어나려면 그곳을 통과해야만 빠져 나올 수 있는 가슴 시린 체험은 모든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자



기정화의 시간일 것입니다. 내가 옳다고 믿었던 신념과 가치관들이 구겨진 종이처럼 내버려지는 경험은 나를 충실히 살아온 삶을 흔들어 버리는 혼돈과 좌절을 맛보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의 허물을 벗으려면 혹독한 성장통을 겪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결국, 태도를 바꾼다는 것은, 지금껏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그릇된 것일 수도 있다는 받아들임과 많은 수고로움을 요구하며 때론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배움과 성장의 길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관계에서 제기되는 많은 갈등은 나를 성장시키는 스승임을 강원에서 킁 서비스처럼 곧바로 확인 가능합니다. 불교적으로 표현하면 회광반조와 참회는 수행자의 필수요건이며 결국, 자기모순의 자각은 곧 자기변혁입니다. 지난 습기 덩어리인 '검은 소'를 길들이기 위해 애쓰는 저의 삶이 때론 안쓰럽기도 하지만, 업력業力에서 벗어난 원력願力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을 길러주는 강원의 고단한 생활 속에 참행복이 깃들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불교용어 중 널빤지를 깊어진 사람을 지칭하는 담판한擔板漢이란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본래 150도 정도의 각도를 볼 수 있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데 깊어진 널빤지 때문에 목격지까지 정면만 쳐다보고 간다고 합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고지식한 담판한은 모든 사람이 자기를 배려해주어야 한다고 믿으며, 몸에 밴 습관으로 자기도 모르게 보고 싶은 것만 보려는 성향으로 굳어진다고 합니다. 충소임이 많았던 지난 치문생활에서 주어진 환경에 최선을 다하며 살아왔다는 교만도, 남들처럼 그저 그렇게 살았다는 겸손도 모두 부질없는 메아리일 뿐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바로 담판한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설정한 수행자란 개념의 틀에 갇혀 그 핵을 보지 못하고 현실과 이상의 괴리감으로 행복을 만끽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알아차림 하였습니다. 붓다께서는 존재와 상황을 인식하는 수준이 삶의 질과 태도를 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인생의 문제는 답이 있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성숙해지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접하다 보니 출가한 후로 늘어나는 것은 참회와 감사함뿐인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역경은 생활방식을 바꿀 수 있게 하는 의미 있는 인생의 전환점'이라고 하듯이 강원생활은 본능적 삶에서 벗어난 본성의 삶을 살게 하는 힘을 길러줍니다. 여러 방면으로 부족한 제가 지금 이곳에 존재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배움을 얻기 위해 이 세상에 왔으며 그것을 발견하는 것은 각자의 여행이라고 합니다. 참 많은 실수를 하며 좌충우돌하면서 지낸 저를 음으로 양으로 너그럽게 봐주신 도반스님들과 대중스님들 덕분에 알게 모르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 같습니다. 결국, 홀로 있는 즐거움보다 함께하는 수행의 즐거움을 배우는 곳이 강원일 것입니다. 깨달음의 여행길에서 만난 운문사 대중스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모두가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두 손 모읍니다. ●



꽃보다 스님

편집부



①



②



③



⑦



⑧ ⑨





4



5



6



10 11



12

- ① 부처님이 뭐예요?
- ② 사교반-진달래 화전 굽기
- ③ 내 안에 부처가 있다고.....
- ④ 약사여래불의 미소
- ⑤ 자비탁발, 걸음걸음 심서 정진하고 법을 전하라
- ⑥ 내 마음 밝혀 줄 연등 만들기

- ⑦ 치문반 사리암 참배
- ⑧ 운문인 걷기 명상
- ⑨ 사집반-우리 앞에 꽃길만.....
- ⑩ 치문, 그 자리가 꽃자리
- ⑪ 어여쁜 진달래佛
- ⑫ 빛을 품다

법정 스님 생전에 운문사에서 학인스님들을 위해 하신 법문이 있어서 앞으로 2회에 걸쳐 실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맑고 향기로운 다향으로 맴도는 귀한 인연이 되기를 바랍니다.

중노릇 할 만해요?

- 법정 스님, 운문사 법문 중에서 -

정리. 해주/사집과



중노릇 할 만해요? 중끼리 만났으니까 중 이야기를 해야지.

다른 절에는 별로 갈 일이 없어요. 될 수 있으면 행동 반경을 줄이고 있는데, 운문사는 내가 잊어버릴 만하면 한 번씩 나타나요. 4년 주기로 내가 여기 나타나요. 학감스님(현 일진 강주스님)한테 내가 팔뚝을 지어서 그러는데. 지나가는 말로 “한 번 갈게요.” 한 게 말이 써가 돼가지고 또 여길 오게 됩니다.

여러 학인스님 만나서 사는 모습 보니까 보기가 좋고, 운문사 도량이 좋아요. 은행나무, 반송, 비로전 부처님, 이게 그렇게 좋더라고요.

비로전이 큰 법당이었는데, 요즘 조성된 다른 불상을 보면, 너무 세련되고 너무 엄숙하고 판에 박은 그런 불상들이예요. 조선 불교가 박해받을 때에 조성된 비로전 부처님은 어디 시골 논길이나 밭길에서 일하러 오신 할아버지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른 불상에서는 볼 수 없는 현상인데, 내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대개 불상들은 석굴암 본존을 비롯해서 한결같이 가부좌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운문사 비로자나 부처님은 좌선을 오래 하셔서 다리가 저리신지 오른발을 내밀고 있는 모습이라고. 그게 참 인간적이에요. 내가 여기 오면 그전부터 알던 부처님이기 때문에 문안을 드립니다.



위 없이 깊고 깊은 미묘한 부처님 법 백천만겁 지난들 어찌 만나리

운문사는 회주스님이 오셔가지고 거의 폐허가 됐던 도량을 다시 세워서 여러 스님들이 은덕을 입고 있는 고마운 도량이에요. 여러분들이 다른 절을 놔두고 여기 운문 도량에 와서 배우게 된 인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나는 여러 스님들을 만나게 되면, 이 험난한 세상에 부처님 법을 만나서 출가 수행자가 됐다는 인연이 늘 고맙게 생각돼요. 많은 길이 있는데, 많은 직종이 있는데, 왜 우리가 부모 형제를 버리고 살던 집을 등지고 절에 찾아왔는가. 다른 종교에서는 신학대학 모집 같은 것도 하는데, 중 모집한다는 광고는 없을 거예요. 누가 오라고 하지도 않고 기다리지도 않았는데, 제 때가 되면 제 발로 온단 말이야. 아주 오묘한 법이라고.

이것은 몇 생의 인연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 마음속 가장 깊숙한 곳에 있는 청정한 본심에서 문득 한 생각 일어나서 자기 갈 길을 찾아서 나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해요. 그 많은 길을 두고 어찌서 하필이면 이 길을 선택했는가. 이런 물음이 공통된 화두가 되어야 해요.

학인 시절은 평생 출가자로서의 기초 다지는 때

출가 수행자의 수행에도 기초가 튼튼해야 합니다. 건물을 지을 때 토지를 굳게 다지고 주춧돌을 튼튼히 놓아야 건물이 들어서서 탈이 없듯이 출가수행의 길도 마찬가지예요. 학인 시절은 바로 평생 출가수행자가 되는 데 기초를 다지는 기간입니다.

아주 중요하다고, 시작이 중요해요. 이 시작으로부터 자기가 앞으로 어떤 수행자가 될 것인지, 스스로 자기가 길을 만들어 내는 겁니다. 또 계 받은 지 오래되면 안일해지고 직업적인 중으로서 때가 묻어요. 직업적인 중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 청정한 출가 본래의 뜻을 가지고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출가 수행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이랴든가 행위라든가 이것은 과연 출가 수행자다운 행위인가 아닌가. 수시로 점검해야 돼요.

또 마을 집에서는 출가를 이해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절반쯤이나 삼분의 일쯤은 이해하는데, 자기 딸이 머리 째깍 깎고 산중에 와서 수행자 노릇 한다는 것을 당당하게 자랑스럽게 여기는 집안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독실한 불자 집안 아니고는. 그런 분들을 감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진짜 좋은 수행자가 되어야 해요.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직업적인 중으로 전락되기 쉽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각자 되돌아보세요. ‘내가 운문사에 와서 하루라도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저 자신도 늘 되돌아봅니다. 내가 오두막에 사는 건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오두막에서 떳떳하게 올바르게 지내고 있는가.’ 이걸 늘 저는 명심해요.

‘운문사에 와서 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가. 내가 과연 안팎으로 출가 수행자답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은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내 행동과 마음 씀이 수행자로서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가. 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길에 들어섰는가.’ 구도자는 자기반성으로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돼요.



구도자는 자기반성으로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불교란 무엇입니까? 깨달음의 가르침.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란 다른 게 아닙니다. 늘 깨어 있는 상태예요. 이와 같은 물음을 늘 지녀야 돼요.

선방에 가보면, 신발 벗는 곳에 ‘조고각하照顧脚下’ 라고 써 있어요. 발 뿌리를 살펴야 돼요. 자기현실, 지금 자기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살피라는 법문이라고. 신발만 가지런히 벗으라는 교훈이 아니고, 과연 내가 이 현장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출가수행자로서 어떤 몸가짐을 했는가, 어떤 마음가짐을 했는가.’ 스스로 되돌아보라는 교훈입니다. 절에 있는 많은 주련, 현판, 그런 표지 같은 것이 다 법문이에요. 장식품이 아닙니다. 세월의 두께라든가 무게가 있다고.

여기 도량에 있는 집들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몇 채는 오래된 집이지만 도량에 가장 오래된 살아 있는 존재는 은행나무와 반송이에요. 이 도량에 처음 심어지면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도량에 살고 있는 많은 스님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거예요. 별의별 희한한 물건들을 다 보았을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도량에 살면서 수백 년이 된 나무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 옛 사

람과 우리를 비교하며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들 자신이 저렇게
당당한 수행자가 되어야 돼요. 희생하는 수행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사물을 볼 때, 그것이 만약 좋은 대상이라면 우리도 그것을 닮아야 된다고. 왜 우연
히 저렇게 두 그루의 나무가 생긴 게 아닙니다. 그 후대를 위해서 이 다음에 올 많은 중생들을
위해서 가르침을 위해서 저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 허구한 세월 속에서, 늘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 은행나무하고 반송이 나를 지켜보고 있
다고. 내가 제대로 중 노릇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 안팎으로 훤히 꿰뚫어 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
심해야 합니다.

경전과 조사의 말씀에 내 마음을 비추어 스스로 일깨워야

이 곳이 강원이니까 주로 경전을 배우잖아요. 경전을 건성으로 배우지 마세요. 글로 배우
지 말고. 경전은 부처님과 조사들의 가르침이에요. 법문이에요. 이것을 그냥 글로만 여기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살아 있는 교훈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2600년 전에 인도에서 있었던 그런 현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부처님께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가르침을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해야 돼요. 경전에 나오는 아난 존자라든가
수보리 존자가 곧 우리들 자신이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과거의 한 문서로서만 여
기게 된다고. 오늘 이 현장에서 부처님이, 그 조사가 우리에게 가르침을 펼치고 있다고 이렇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 문자는 지혜가 아닙니다. 글은 지혜가 아니에요. 그렇지만 문자로써 지혜를 드러내죠.
흔히 불립문자不立文字라 하니까 문자를 무시하는 거라 생각하지만 불립문자不立文字 자체가
하나의 문자라고. 거기에 너무 팔리지 말라는 거야. 문자의 근원을, 그 글의 근원을 알라는 거
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하자면 아직 활자화되지 않은 소식을 자기 안에서 이끌어 내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우고 있는 경전이라든가 조사의 말씀에 나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내 안에 잠
들어 있는 부처님의 말씀이라든가 조사의 교훈을 스스로 일깨워 살라는 말이에요. 경전을 익힐
때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루하루 경전을 배우는 의미가 있고 재미가 있다고. 그렇
지 않으면 어려운 한자 난자 찾아가면서 그 시간 지나가고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그
러면 이 집안에 들어와서 빛만 지는 거예요. ㉔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를 읽고

혜오 / 운문사한문불전대학원

목련 꽃망울의 두터운 털옷이 부끄러워하며 살짝 열리네요.
따사로운 봄 햇살, 활짝 핀 피하당 앞의 매화 향기가 코끝에 달달함을 전합니다.
멸滅하여 새로운 생생을 준비한다고 하지요. '죽살이 죽살이 (生滅 生滅...)'
생로병사生老病死 회로애락喜怒哀樂 생주이멸生住異滅 춘하추동春夏秋冬 그리고
원형이정元亨利貞으로 이 모든 것이 법계法界임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가 전에는 법정 스님의 '무소유'와 '새들이 떠나간 숲은 적막하다' 이 두 권의 책이 늘 책상 한켠에 있어 언제든 보고 또 보고……. 무심코 펼침에 한 쪽의 한 글귀만 보아도 사회생활 속에서 스트레스로 부정적이고 여유가 없었던 나에게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해주었고, 그늘진 나의 마음에 여유로움을 주었던 선물이었습니다. 돌아보니 감사하게도 법정 스님의 이 두 권의 책이 내 마음에 출가出家의 씨앗을 자연스레 심어 부처님의 해명慧命을 입었고, 방황하던 순간순간에 방향을 찾게 해주었지요.

신심나게 출가하였었고 강원생활 그리고 맑은 바 소임, 그러다 다람쥐 쳇바퀴 도는 듯한 일상에 묻혀 문득문득 펄펄 떠던 초심初心을 잊어감에 마음이 조급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이 구름문이 펼쳐진 이곳 운문사 한문불전승가대학원에 들어와 회주스님과 함께 간경하게 되었고, 열반경, 법화경을 보며 경림經林의 그늘 아래서 스스로 부끄러운 근기根機임에도 불구하고 환희심 나는 매일매일입니다.

더구나 매달 첫째 월요일에 부산 범어사 문수선원에서 무비 스님의 화엄경산림법회에 강주스님과 함께 무진복덕장법문無盡福德藏法門인 화엄경의 큰 광명으로 공부하는 행자 되니 마음이 더욱 다들어지고 밝아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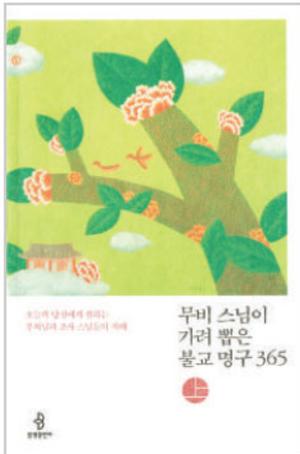
그러던 중 무비 스님으로부터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명구 365」를 지난 9월에 법공양 받았고 지금 내 책상 한 쪽에 놓여 하루를 시작하거나 마무리할 때 함께 합니다.

선어록 모음집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일 년의 날짜가 있어 게으름 피우지 않게, 하루 한 편씩 읽을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치문, 서장, 선요, 선가귀감, 금강경, 화엄경, 임제록, 육조단경 등 무수히 많은 불교의 경전과 주석서, 해설서, 어록 가운데서 명구名句와 조사들의 명언名言들을 뽑아, 출처와 유래에 대한 설명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그래서인지 그 뜻이 더욱 명쾌하여 강원생활 할 땐 보이지 않았던, 그리고 부끄럽게도 배운 기억조차 나지 않는 명구名句들이 쉬이 반갑게 와 닿아 저의 무명을 조금씩 조금씩 밝혀줍니다.

또한 나무, 나뭇잎, 구름시리즈 등의 싱그러운 그림으로 눈과 마음에도 썬표를 주며, 책이 펼쳐지는 곳에 마음 가는 대로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명구와 조사들의 명언들을 사경寫經도 하고 싶어 조그마한 공책과 붓펜도 준비하였답니다. 참으로 환희심 나지요.

어릴 때 이웃의 동자스님이 외는 자경문의 ‘삼일수심三日修心은 천재보千載寶요, 백년담물百年食物은 일조진一朝塵’이라는 구절로 ‘내가 갈 길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면서 출가를 결심하셨다는 무비 스님의 이 책 가운데 나를 돌아보게 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어 나로 하여금 사경도 하게 하는 명구名句 중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는 공부를 말미암아서 밝아진다. 道由學而明
그런데 공부를 가히 게을리할 수 있겠는가 學可怠乎
- 치문 교산 면학 -

도란 인생의 가장 바람직한 삶의 길입니다. 만인의 사표가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 삶입니다. 이런 일이 그냥 얻어지겠습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그 길이 밝아집니다. 단 한 번뿐인 이 소중한 인생을 어찌 게으름으로 세월을 보내고 아무런 의미도 없이 인생을 마칠 수 있겠습니까. 한 순간 한 순간의 삶은 만금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공부하는 데 있는 힘을 다 쓰기를 권하는 면학勉學의 일절입니다.



지금 내 방엔 올해 기해년 정초기도 회향으로 선물받은 조그마한 천리향 화분에 꽃망울이 수줍게 모여 있습니다. 조금 지나면 깨달음의 경지인 아름다운 꽃과 향기를 전해주겠지요.

사람 몸 받기 어렵고 불법佛法 만나기는 더욱 어렵다 하는데, 내가 이미 받은 이 두 가지 한량없는 복福에 감사하며, 법화경과 화엄경 그리고 부처님과 조사스님들의 지혜가 담긴 선어록 모음집 「무비 스님이 가려 뽑은 불교 명구 365」로 오늘도 지극한 마음 간절하게, 진정으로 세간의 법을 배우며 어둠지 않게 마음 밝혀가겠습니다.

나무마하반야바라밀. 🌱

탁발, 당당한 수행자의 중생을 위한 자비심

걸식하는 그것만으로

수행자라 할 수 없다

모든 법을 몸에 익혀

수행자가 되는 것이지

걸식한다고 그렇게 부를 수는 없다.

『법구경』



길상사 지장전 '탁발하는 나한상'

지난 3월에 화엄반이 자비탁발을 다녀왔다.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1년에 한 번 부산, 대구, 경산, 신원리 등지로 나가 탁발을 한다. 앞선 스님이 목탁을 치고 나아가면 한 줄로 늘어선 스님들이 발우를 두 손으로 들고 석가모니불 정근을 하면서 안행을 한다. 그러면 재가 신도님들이 발우에 직접 성금을 넣어 주신다. 이렇게 해서 모인 자비탁발금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이나 단체에 기부한다.

현재 대한불교조계종에서는 개인적인 탁발을 제도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유는 조선시대 억불정책으로 탁발이 구결의 부정적인 의미로 전락했고 개인이 탁발하면서 착복과 가짜 승려가 등장하는 등 폐해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 운문사승가대학에서는 수행자로서 하심과 자비심, 무소유 정신을 체득하고 4년간의 수행과정을 회향하는 전법傳法の 의미로, 재가자에게는 보시의 공덕을 닦을 수 있는 인연을 만들고자 연례행사로 '자비탁발'을 진행하고 있다.

탁발은 산스크리트어 'piapata'의 음역 빈다파 다賓茶波多의 번역어이다. '발우에 의탁한다'는 뜻으로 걸식乞食을 말한다. 지발·봉발이라고도 하며, 중국에서는 송나라 때부터 탁발로 통했다. 탁발은 부처님 시대 인도에서 일반화되어 있던 수행자의 풍습이 불교에 도입된 것이다. 중국·한국의 불교에서, 특히 선종에서는 수행의 일환으로 간주된다.

부처님께서는 2600여 년 전에 인간의 존엄성을 천명하면서 세상에 나섰고 모든 법이 연기로 존재함을 깨달으셨다. 당시의 관습과 편견으로부터 절립 없이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수행자들은 자신의 마음을 밝혀 당당했고 자유로웠으며 평화로

왔다. 바로 이 진리를 깨우쳐 삼계의 고통 속에서 해매는 중생들의 행복과 이익을 위해 전도의 길을 걸으신 것이다.

수행자들이여, 자 길을 떠나라.
여러 사람의 이익과 안락을 위하여,
두 사람이 한 길을 가지 마라.
수행자들이여
처음도 좋고 중간도 좋고 끝도 좋으며
공정하고 이치에 맞게 합리적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설하라.
이주 원만하고 청정한 행을 드러내 보여라.
수행자들이여, 나도 우루벨라로 가서 중생들에게 법을 전하리라.
『잡아함경』

그 전법의 길 위에서 부처님과 부처님의 제자들인 해탈한 아라한들도 결식하셨다. 음식에 대한 탐욕이 완전히 끊어진 부처님과 아라한이 남의 음식을 빌어먹는 탁발을 한 이유는 바로 중생들에게 공덕을 쌓게 해주기 위함이었다. 부처님과 아라한 제자들은 직접 가서 얻어먹음으로써 그 시주자에게 무한한 공덕을 쌓게 했고 그것은 중생들에게 해탈의 인을 심어주는 대자대비의 중생 제도를 위한 방편이 되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 ‘12두타행’에는 ‘항상 탁발 결식한 음식만 먹는다, 결식하는 데 빈부의 집을 가리지 말고 차례로 7家食 한다’는 등의 조항이 있었다.

모든 것이 풍요로운 현대에 탁발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커졌다. 부처님 시대에는 직접 결식을 나섰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 승가는 재가자들의 시중물로 수행해 나간다. 수행자로서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내가 이 공양을 받을 만한가’, ‘내가 모든 법을 몸에 익히고 있는가’ 하고 끊임없이 살피고 깨어 있어야 할 것이다. 수행자는 당당히 자신의 마음밭을 갈고 씨 뿌려 돌보고 깨달음에 이르러 극기추상克己秋霜의 정신으로 수행에 임해야 한다. 이와 같은 사람은 비로소 탁발하여 밥을 얻어먹을 자격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수행자의 향기가 될 것이다.

밭우 하나 들고 시장 안을 돌면서 보니 가게 문을 닫은 집, 임대를 내놓는 집 등이 종종 눈에 띄었고 사람들이 많지 않아 한산했다. 세간의 경제가 어렵다는 말을 풍문으로 들었지만, 그 말이 체감되는 상황이었다. 그럼에도 신심 있는 불자님들은 시장 바닥 좌판에 앉아 나물 한 바가지 판 돈을 자비 성금으로 선뜻 보시했다. 성불하소서.

‘나무 석가모니불’을 호명하면서 ‘모든 중생들에게 불법의 뜻이 전해져 성불하여지이다’ 하고 발원했던 것처럼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기를 바라는 탁발정신은 계속 이어져야 할 것이다. ☸

운문소식



▲ 신중기도



▲ 좌염반 자비탁발



▲ 소나무 막걸리 주기



▲ 도량 벚꽃보행



▲ 법륜스님 특강

- 3월 10일 봄철 개학공사 및 재우스님, 대학원 5명, 숭가대학 22명의 방부 인사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오후 2시에는 신중기도 입재를 하였습니다.
- 3월 12일 3일 간의 신중기도 회향 후 화제예방 소금물기를 하였습니다.
- 3월 15일 봄철 첫 자자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17일 치문반 스님들이 사리암과 문수선원 참배를 다녀왔습니다.
- 3월 19일 강주스님을 비롯하여 교수스님, 대학원 스님, 화엄반 스님들이 부산, 대구, 경산에 자비탁발을 다녀왔습니다.
- 3월 23일 사시 범공양 후, 연동 만들기 대중을 력이 있었습니다.
- 3월 25일 저녁예불 후 신입생 환영회가 청풍료에서 있었습니다.
- 3월 28일 운문사승가대학 총동문회에서 주최하는 '길상사에서 조계사까지 견기명상(行禪)' 을 어른스님들과 대학원, 화엄, 사교반 스님들이 다녀왔습니다.
- 3월 27일 ~4월 4일 범어사에서 봉행된 제39회 단일계단 구족계 수계산림에 일진 강주스님께서 니 존중이사리, 교수사,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셨으며 운문사승가대학 제55회 졸업생 26명의 스님들이 비구니계를 수지하고 운문사에 와서 회주스님께 인사드렸습니다.
- 4월 7일 삼월 삼진날 연례행사인 처진 소나무 막걸리 주기를 했습니다.
- 4월 8일 봄소풍을 다녀왔습니다.
- 4월 13일 대자원 법회가 비로전과 보리수 수목원에서 있었습니다.
- 4월 15일 학인스님들의 관물장 검사가 있었습니다.
- 4월 18일 선열당에서 법륜스님 특강이 있었습니다.
- 4월 19일 저녁예불 후 청풍료에서 차례법문이 있었습니다.
- 4월 23일 전국 사미니 숭가대학 교수스님 모임인 '교우회' 가 봉녕사에서 있었습니다.
- 4월 23일 ~26일 봉녕사에서 봉행된 제27회 식차마나니 수계산림에 일진 강주스님께서 갈마위원으로 참석하셨으며 사교반 16명이 수계하였습니다.
- 4월 24일 故원해당 흥륜 전 학장스님 4주기 기제사가 비로전에서 봉행되었습니다.
- 4월 27일 사교반 스님들이 동화사 관동제에 단체 열불공연을 다녀왔습니다.
- 5월 1일 자자 및 방학공사가 청풍료에서 있습니다.
- 5월 2일 27일 간의 봄방학이 시작됩니다.

도외주신 분

- 노기용
- 황병석
- 정해묵
- 박형수한의원
- 윤경숙
- 권해용
- 양명희
- 현행
- 부유부동산
- 권혁창
- 주건우

※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 『雲門』誌 발간에 도움을 주실 분은 아래의 온라인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체국 701839-01-000335, 예금주 : 운문편집실)

* 주소가 변경된 분은 편집실로 연락 주십시오 ☎ (054)370-7139



운문사 비로전 관음보살 벽화, 보물 제1817호

관세음보살

백의관음 말 없는 가운데 말씀하시고
 남순동자 들음 없이 듣도다
 병 위에 바들가지 항상 여름인데
 바위 위의 대나무는 시방의 봄일세 🌿

- * 「자유기고」에서는 전국 학인스님들의 글을 받습니다.
- * 「호거산 운문사」에서는 운문지 독자 후기, 운문지에 관한 에피소드 등 독자의 소리를 기다립니다. 많은 관심과 투고 바랍니다.
- * 운문사에서 사리암 기도영험록을 제작합니다. 사리암 나반 존자님 기도를 통해 가피를 얻은 불자님들의 제보를 받습니다.
054)372-8800



운문사 지장전 벽화

부처님 가르침에 귀의할 때는
 이같이 원하라
 중생들이 경장에 깊이 들어가
 지혜가 바다와 같게 하여지이다

雲門寺僧伽大學

38368 경북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 雲門寺 / 편집부 (054)370-7139 / 종무소 (054)370-7100 / <http://www.unmunsa.or.kr>

[운문·계간] 봉호·통권 제148호·2019년 4월 29일 발행·등록 1995년 3월 29일·등록번호 경북 바-01008 / 발행처·운문사승가대학 / 발행인·명성(전임호) 고문·원범 / 편집·운문사승가대학 편집부 / 편집장·성경 / 편집위원·영산, 혜동 / 사진·편집부 / 표지사진·라상호(운문사 법륜) / 삽화·도현우, 지엄, 무드 편집디자인·Design MARU (디자인 마루) (053)426-3395